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聽灘 金光秋(1905~1983) 서예의
미술사적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姜奉錫

2015年 8月

聽灘 金光秋(1905~1983) 서예의
미술사적 연구

指導教授 金 榮 官

姜 奉 錫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8月

姜奉錫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8月

An Art Historical Study on Calligraphy of
Cheongtan Kim, Kwang-Chu(聽灘 金光秋, 1905~1983)

Kang, Bong-Seok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K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5.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n Art Historical Study on Calligraphy of Cheongtan Kim, Kwang-Chu(聽灘 金光秋, 1905~1983)

Calligraphy in Jeju that was developed after Chusa Kim, Jeong-hee has been spread by the regional calligraphers aside from the direct transmission of calligraphy. In particular, as it is said ‘Soam(素菴) in the South of Mt. Halla and Cheongtan(聽灘) in the North of Mt. Halla’, Kim Kwang-Chu(金光秋) and Hyeon, Jung-hwa(玄中和) has been evalua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calligraphy in Jeju and passing down the technique to the next generations. The two calligraphers studied under Tsujimoto Shiyu(辻本史邑) in Japan, and both led the calligraphic community in Jeju as they joined Yeongju Calligraphy Society(瀛洲研墨會) and Somukhoe(素墨會)(Calligraphy Study Group).

Although they are at such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calligraphic community in Jeju in the modern times, there are lacking or little researches on the two calligrapher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hed new light on Kim, Kwang-Chu, who has been relatively rarely studied among the two who led the calligraphic community in Jeju and organize the legacy he left in the community to fill up a part of the calligraphy history in Jeju.

Kim, Kwang-Chu was born in Hwabuk-dong, Jeju and attended Baejae high school in Seoul thanks to a wealthy family. He picked up the interest and had perspectives into fine arts through Go, Hui-Dong(高義東), Kim, Bok-Jin(金復鎭) and Ahn, Seok-Ju(安碩柱). Influenced by them, he went to Japan and worked on various genres including calligraphy as well as western painting, engraving and

photography. Based on his three times of studying in Japan, he influenced on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modern arts in Jeju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alligraphy, western painting and photography.

Kim, Kwang-Chu, who was elected to be a provincial assembly member in 1960, gave calligraphic writings for the 「Spirit of the Marin Corps(海兵魂)」 on the Marin Corps Memorial tower located in Ildo 1-dong in Jeju as well as 「Hwabuk dock Statement to divine spirit(禾北浦始役時告由文)」 and 「Jeju Chinese Korean Primary School(濟州華僑小學校)」, 「Memorial Momument for Patriotic Martyr Cho, Bong-Ho(殉國志士趙鳳鎬紀念碑)」, 「Jeongcho(定礎)」, 「Hwamaek(畫脈)」, 「Samsunggyo(三姓橋)」 and 「Namyang Munhwa Broadcasting Corportation(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He presented calligraphic writings across the society including the public offices, schools and broadcasting stations. This proves that Kim, Kwang-Chu was recognized in the Jeju society as a calligrapher, a politician and an educator.

In addition, he paved the way for calligraphy in Jeju by exchanging with Hyeon, Jung-Hwa working in the South of Mt. Halla after returning from Japan and releasing Yeongju Calligraphy Society derived from Damdamhoe(淡淡會). He engaged in formation of Jeju Somukhoe by actively encouraging Hyeon, Jung-Hwa to teach calligraphy. Afterward, as Somukhoe spread to Seogwipo, Gwangju, Mokpo, Daegu and Masan, each region had its own Somukhoe. Kim, Kwang-Chu and Hyeon, Jung-hwa contributed to building and settling calligraphy in Jeju during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which led to 'Soam in the South of the mountain and Cheongtan in the North of the mountain'.

Kim, Kwang-Chu played a leading role in Jeju Island in terms of seal engraving(篆刻), as well. He let the legacy of seal engraving continue in the seal engraving community in Jeju, where the legacy of engraving was cut off after liberation. In addition, by exchanging with Ahn, Kwang-Seok, he introduced creative seal engraving works and arranged seal engravers in Jeju to take lessons from Ahn, Kwang-Seok, contributing to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eal engraving in Jeju.

The role of Kim, Kwang-Chu in the calligraphic history in Jeju can be seen in his friendship with the artists in and out of Jeju Island. He exchanged with the active artists in various genres including calligraphy, photography and literature regardless of genres in Jeju Island. He had friendships with artists outside the island after the Jeju 4·3 Incident. He arranged to host an exhibition of the other cities' artists in Jeju Island during the process of exchanging with Heo, Bak-Ryeon(許百鍊), Heo, Keun(許楨), Yu, Chi-Hwan(柳致環), Song, Seong-Yong(宋成鏞), Seo, Jeong-Ju(徐廷柱), Ahn, Kwang-seok(安光碩), Cheon, Kyeong-Ja(千鏡子), Seo, Se-Ok(徐世錕) and Go, Eun(高銀) and encouraged the residents in Jeju Island to possess the exhibited works. The exhibition event in Jeju Island was vibrant thanks to Kim, Kwang-Chu's role to introduce the artists outside the island and their artistic works, which advanced calligraphy in Jeju.

This paper aimed to identify the position of Kim, Kwang-Chu in the history of calligraphy in Jeju and focus on him for the first time as a person, who pioneered and strengthened the foundation of calligraphy in Jeju as a leader of the calligraphic community in Jeju. However, there is still insufficient research that reviewed his works in Japan, exchanges with the artists in and out of Jeju Island and his world of works.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analyzed only the currently remaining resources. Also,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further discover new materials and conduct in-depth studies.

표 목차

<표 1> 김광추의 가계도	3
<표 2> 김광추 교유 인물	29
<표 3> 남양미술회관 전시회 현황	38
<표 4> 김광추의 題號 作品	39
<표 5> 김광추·현중화의 사승관계	41
<표 6> 辻本史畝의 감상안 양성법	42
<표 7> 김광추가 쓴[書] 묘비 일람	48

도판 목차

<圖 1> 김광추 「풍경」	4
<圖 2> 김광추 「나루터」	7
<圖 3> 潮風閣	9
<圖 4> 현중화 「潮風閣」懸板	12
<圖 5> 현중화 「灘響悠久」	12
<圖 6> 박태준 「得好友來」	14
<圖 7> 문기선 「聽灘先生」	15
<圖 8> 김광추 「愚公·梅一」	17
<圖 9> 허백련 「寧靜致遠」	19
<圖 10> 許鍊 「五百將軍岩」	20
<圖 11> 허건 「蘭花」	20
<圖 12> 허건 「雪景」	21
<圖 13> 송성용 「風竹」	22
<圖 14> 서정주 「학」	23
<圖 15> 안광석 「室以·簾上」	25
<圖 16> 안광석 「般若波羅蜜多心經」	25
<圖 17> 서세옥 「梅花圖」	27
<圖 18> 沙羅展同人會 창립기념	28
<圖 19> 제주의 서예가들	29
<圖 20> 「海兵魂」	33
<圖 21> 「禾北浦始役時告由文」	33
<圖 22> 「濟州華僑小學校」	34
<圖 23> 「殉國志士趙鳳鎬紀念碑」	34

<圖 24> 「定礎」	35
<圖 25> 「畫脈」	35
<圖 26> 「三姓橋」	36
<圖 27> 「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37
<圖 28> 「學行一致」	39
<圖 29> 「樂志論」	45
<圖 30> 「作事有方」	45
<圖 31> 「漁父辭」	46
<圖 32> 「李忠武公 詩」	46
<圖 33> 「與天無極」	46
<圖 34> 「公直無私」	46
<圖 35> 「瀛洲十景」	47
<圖 36> 「萬事莫如」	47
<圖 37> 「天寒·月落」	47
<圖 38> 「明心寶鑑 句」	47
<圖 39> 「嘉善大夫金海金公就鼎之墓」	48
<圖 40> 「壹年無日不看華」	53
<圖 41> 고재만, 「耽羅의 脈」	53

목 차

I. 서론	1
II. 생애와 교유	3
1. 생애	3
2. 교유 관계	9
III. 서예 작품과 후진 양성	31
1. 題號 作品	32
2. 書藝 作品	39
3. 書藝·篆刻 指導	49
IV. 결론	54
참고문헌	57
부록	61
1. 청탄 김광추 年譜	61
2. 청탄 김광추 印譜	63
3. 청탄 김광추 작품 목록	65

I. 서론

제주의 서예를 논할 때는 보통 고려시대의 高適을 필두로 하여 조선시대 高得宗, 高得中, 金良弼, 吳靄, 姜師孔, 金龍徽 등을 거론하는데, 이들은 향교나 서당 등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을 병행했던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 서예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19세기 중반 金正喜가 대정현에서의 유배 과정에서 姜道渾, 金九五, 朴癸瞻 등의 문인들에게 필법을 전수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洪鍾時가 김정희의 추사체를 이어받게 된다.

추사 이후 진작된 제주의 서예는 직접적인 서법의 전승과는 별개로 張聖欽, 金錫翼, 高順欽, 金容河 등 지역 서예인들에 의하여 꾸준히 전개되었다. 뒤를 이어 金光秋, 金性澤, 洪貞杓, 玄中和 등이 근대적 의미의 서예 개념을 도입하여 동호인 단체를 구성하여 회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감으로써 제주서단 형성의 모태를 이루었다.¹⁾

특히,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남의 소암, 산북의 청탄’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김광추와 현중화는 제주 서예의 기반을 다지고, 그 맥을 후대에 계승시키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본 유학시절에 스지모토 시유(辻本史邑)를 사사했는데,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귀국 후 현중화가 서귀중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홍정표가 제주시에서 서예단체를 발기할 즈음이라고 한다. 이후 이들은 같은 영주연묵회와 소묵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제주 서단을 이끌게 된다.

이처럼 근대 제주 서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중화의 경우는 소묵회 지도·국전 심사 등 생전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어 그나마 몇 편의 논문²⁾으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60년사』 1권, 대영인쇄사, 2008, 259쪽.

2) 姜京勳, 「素菴 玄中和의 書藝術 世界 研究」, 圓光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柳鳳子, 「素菴 玄中和의 書藝術 研究」, 湖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玄有桓, 「素菴 玄中和 書藝觀 研究」, 京畿大學校 美術 · 디자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2.

로 현중화의 서예관 및 서예술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김광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그가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 그에게서 서예·전각·수석·난초 등에 관한 지도를 받았던 제자들에 의한 일대기와 제주 예술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글³⁾이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 제주 서예를 이끈 두 인물 중 상대적으로 연구가 거의 없다가피 한 김광추를 재조명하고 그가 제주 서예계에 남긴 족적들을 정리함으로써 제주 서예사의 한 부분을 채워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광추의 생애와 교유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들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서예 지도 활동의 양상과 제주 서예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夫允子, 「素菴 玄中和의 書藝術 造形性 研究(行草書를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3.

- 3) 오성찬, 「20세기 제주예술을 이끈 청탄(聽灘) 김광추(金光秋)」, 『감골원예』 172호, 감골농업협동조합, 1977.
오문복, 「나는 이 선각자를 존경합니다」, 『월간 관광제주』 제 23호, 1986.
오성찬, 「영원한 素人の 분위기」, 『월간 관광제주』 제 23호, 1986.
吳津滋, 「청탄선생 行狀」, 『월간 관광제주』 제 23호, 1986.
허연옥, 「소목회의 은인, 청탄선생」, 『월간 관광제주』 제 23호, 1986.
이성두, 「청탄선생과 수석·분재」, 『월간 관광제주』 제 23호, 1986.
전성호, 「청탄선생과 제주 전각」, 『월간 관광제주』 제 23호, 1986.
오문복, 「남농이 말하는 청탄 - 청탄은 나의 스승」, 『월간 관광제주』 제 24호, 1986.
김승근, 「청탄선생과 제주의 도자문화」, 『월간 관광제주』 제 24호, 1986.
오성찬, 「제주예술의 요람, 聽灘 金光秋」, 『20세기 제주 사람들』, 도서출판 반석, 2000.
오장순, 「제주의 예술인 탐구 聽灘 金光秋」,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하, 보고서, 2010.

II. 생애와 교류

1. 생애

1) 家系⁴⁾

김광추는 부친인 都軒公 時秉과 晉州姜氏 사이에서 1905년 9월 21일(음력) 제주도 화북동에서 태어났다. 김해김씨 삼현파의 입도조 福模의 17세손이다. 본관은 金海, 자는 益鎭, 아호는 聽灘, 潮風閣 主人, 堂號는 潮風閣이다.

1920년(16세)에 康四正과 결혼하여 장녀 用文을 낳고 이혼, 이후 金春燮과 결혼하여 장남 石崙과 차녀 銀玉, 銀鈴을 낳았으며, 4·3사건으로 일본 도피생활 중 高乙生과 결혼하여 차남인 石峯과 사녀인 銀姬를 낳았다.

부친 金時秉은 화북 마을의 옛 내력대로 일찍이 장삿길로 나섰다. 화북 마을은 예로부터 포구가 발달하여 내륙무역과 해운업이 성했고, 일제 강점기 때는 오사카와 내왕이 빈번하였다. 그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김시병은 오사카와 제주 시내에서 포목상을 하였고 마을 사람들과 합자로 해운업에도 투자를 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 노후에는 귀향하여 삼양동, 도련동, 봉개동에까지 농토를 두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였다. 어

<표1. 김광추의 가계도>

구분	이름	비고
始祖	首露	
↓		
三賢派 始祖	管	
↓		
入島祖	福模	
↓		
別刀派祖 6世孫	達遜	
↓		
10世孫	就鼎	禾北入鄉祖(1699-1779)
↓		
11世孫	俊星	(1718-1796)
↓		
12世孫	昌仁	(1750 -1830)
↓		
13世孫	泰寶	高祖父(1791-1861)
↓		
14世孫	宗範	曾祖父(1813-1904)
↓		
15世孫	載淑	祖父(1845-1919)
↓		
16世孫	時秉	(1881-1960)
↓		
17世孫	光秋	(1905-1983)

4) 『金海金氏福派世系圖』, 『金海金氏福派譜』 卷1 및 장남 김석윤의 증언 참고.

린 시절의 김광추가 서울에서 유학할 수 있었던 것도 부친이 마련한 경제적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⁵⁾

2) 생애

김광추는 어릴 때부터 동네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웠고, 한학을 익혔다. 손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려 동네에서는 칭찬이 자자하였다. 1917년 화북 사립 보통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濟州公立普通學校(현재 제주북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 후 1919년 3월 졸업하였다. 1923년(19세)에는 서울의 培材高等普通學校에 입학하였다. 이 때 그는 조선 최초의 서양화가인 高羲東(1886~1965), 조선 최초의 조각가로 불리는 金復鎭(1901~1940), 미술 비평가로 활동을 한 安碩柱(1901~1950) 등의 지도를 받으며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키워 나가게 된다.

김병택은 『제주예술의 사회사』에서 배재고등보통학교 시절의 김광추는 교회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교회동은 모더니즘 기법의 하나인 감각적 색채의 사용을 매우 중시했는데 그것이 김광추의 회화작품 「풍경」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圖 1>

<圖 1> 김광추 「풍경」



김광추를 지도했던 김복진과 안석주의 경우는 서로 인연이 깊었다. 교회동의 밑에서 미술가로서의 꿈을 키우던 안석주는 김복진과 일본 유학을 함께 떠난 인연도 있지만 극단 백조, 토월미술연구회 등에서도 그와 함께 활동을 했다. 김복진은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던 중 1928년에 치안유지법·보안법·출판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 받고 1934년 2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⁷⁾

5)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하, 보고사, 2011, 200~202쪽.

6) 김병택, 위의 책, 119~120쪽.

이후 안석주는 조직 활동이 부실했고 조직 중심에서 볼 때 불필요한 잡문이나 발표하는 등 조직기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현실에 순응하는 성격의 안석주는 후에 창씨개명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아탑 속의 예술지상주의 미술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민족과 민중 그리고 대중의 이익을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미술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민족미술론을 가지고 있었다.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광추는 배재고등보통학교 시절 김복진과 안석주 등에게 단순한 미술교육 이외에 사상적인 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복진이 수감된 해인 1928년(24세) 배재고등보통학교를 과감히 중퇴하여 渡日하게 되었던 것도 그 영향이라 볼 수 있다.⁹⁾

일본으로 건너 간 김광추는 印章 집에서 일을 하며 전각을 익혔으며 관서지역의 서도를 이끌고 있던 쓰지모토 시유(辻本史邑)를 사사하기도 했다.¹⁰⁾ 또한 회화작품 「풍경」을 그린 때가 1930년이었으므로 이 시기의 김광추는 다양한 장르에서의 작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예에 집중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예술적 활동에 관심을 고루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1932년 귀국하는 김광추는 당시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카메라와 서예법첩·서양화구·관상 화훼집 등을 가지고 들어와¹¹⁾ 제주 문화예술계에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1년간 화북사립보통학교(현 화북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3년 다시 도일 후 귀국하는 1936년¹²⁾에는 화북초등학교의 옛 은사이자 동료였던 木牛 金文準(1893~1936)이 항일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순국하게 되자 그 유해를 제주도로 봉환하였으며,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이 일로 인해

7) 최열, 『한국근대미술비평사』, 열화당, 2001, 97쪽.
 8) 최열, 위의 책, 216쪽.
 9) 일설에는 김광추가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고도 하나 장남 김석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김광추는 졸업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10) 뒤에 거론될 소암 현중화는 1924년 渡日 후, 1937년에 일본 서도 대가인 마쓰모토 호스이(松本芳翠)를 3년간 사사하였고, 1940년에 쓰지모토 시유(辻本史邑)를 8년간 사사하였다.
 11) 문기선, 「聽灘先生을 기리며」, 『제주예술』 제4집, 예총제주도지회, 1991, 32쪽.
 12) 김광추가 2차 도일 후 일본 생활에 관한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귀국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1937년이라는 설이 다수 있으나, 목우 김문준의 장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3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감시와 미행이 심해져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오히려 집 안에서 서예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김광추는 배재고등보통학교 시절 김복진과 안석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화북 초등학교 은사이자 동료였던 김문준의 영향도 짙게 받았다. 김문준은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귀국하였고 화북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순흙의 영향도 있었다.¹³⁾

김문준은 1927년 7월 渡日하여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 산하의 大阪 조선노동조합 집행위원을 역임하다 대관 고무농장노조의 배후 조종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 폐결핵이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나 도근산 요양소에 입원했으나 1936년 5월 26일 43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 때 김광추가 운구위원이 되어 봉환하게 된 것이다. 유해를 조천면사무소 앞에 봉안하고 도민장으로 거행하려 했으나 일제의 간섭으로 부득이 조천리민장으로 결정하여 1937년 3월 25일 조천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이에 앞서 죽암 고순흙은 오사카에서 김문준의 유해의 제주 송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본에서 조천의 安堯儉, 金瑩煥, 金時容 등에게 연락을 취하며 안장에 대한 지도를 하였다.¹⁴⁾

고순흙은 김문준과는 제주공립농업학교 동기생이다. 그는 제주 최초의 아나키스트로서 아나키즘을 제주도에 전파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⁵⁾

1914년 京城專修學校(서울법대 전신)를 졸업하면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신민회 계열의 비밀단체인 大東青年黨에 가입하였고, 松山 金明植, 梅園 洪斗杓와 '松竹梅血盟結義'로 국권회복을 다짐하였다. 1924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오사카에서 조선인의 사상단체인 南興黎明社에 참여하는 등 사회주의 계열의 입장에서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고순흙은 한시와 서예에도 능하여 1937년 조선서도연구회를 마련하여 秋史體와 蒼岳體¹⁶⁾ 등 민족서체의 보급에도 힘썼다. 김문준의 묘표와 金沄培, 金時成, 金時淑의 묘비 등 항일인사의 비문은 거의 고순흙의 글씨이다. 영구 귀국한 1963년에는 서예에 몰두하여 제

13) 김석윤(김광추의 장남)의 증언(2014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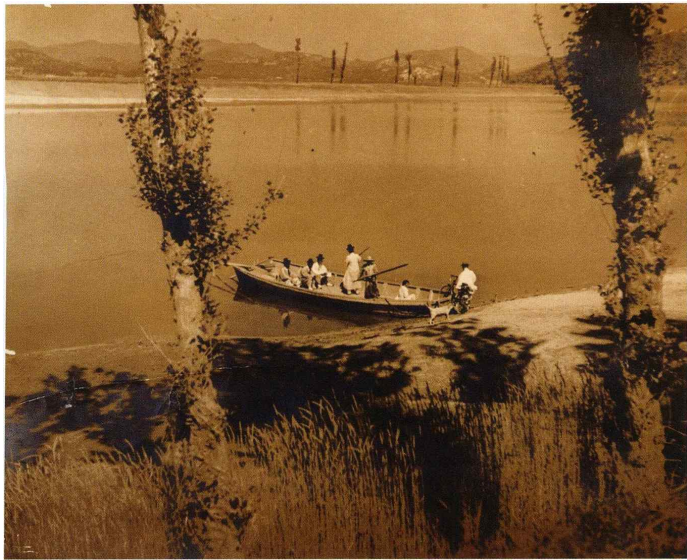
14) 金榮洽,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도서출판 조원사, 2000, 117~118쪽.

15) 박찬식, 「제주민중항쟁의 역사」,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119쪽.

16) 전주 출신의 이삼만의 서체.

주·부산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77년 작고 후 대전 국립묘지 순국선열 묘역으로 이장되었는데 문하생이었던 金順謙이 비문을 썼다.¹⁷⁾

1936년 귀국한 김광추는 고향에서 초대 의용소방대장 및 區長으로서 향토발전을 위해 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였다. 1942년에는 일본 『아사히 카메라』지 주최 사진 공모전에서 사진작품 「나루터」가 입선으로 입상을 하게 되었다. <圖 2> 당시에 그가 사용했던 카메라의 가격은 200원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하며, 집에 암실을 마련할 정도로 사진에 관심이 많았다. 제주에 카메라를 제일 먼저 들여와 사진술을 보급시킨 제주 최초의 사진작가는 김광추라고 할 수 있다.¹⁸⁾



<圖 2> 김광추 「나루터」

1945년 해방 후에는 제주신문 초대사장인 김석호와 함께 제주신문 창간에 관여 하였다. 그리고 1948년 4·3 당시에는 목우 김문준의 유해 봉환과 화북독서회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친과 당시 제주신문사 사장이었던 신두방 등의 도움으로 풀려 나와 늦여름 10살 연하의 종숙부와 함께 전라도 광주로 도피를 하였다. 다음은 김광추의 장남 김석윤의 증언 내용이다.

4·3사건이 발발하자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김문준 선생 유해 봉환과 관련된 일 때문에 심한 곤경에 처하셨죠. 이 때 할아버지가 나서고 신두방 선생의 도움으로 광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는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인 김문준 선생의 유해를 고향에 모시고 와서 장례를 지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화북독서회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화북 집 마루 아래에는 아버지가

17) 金榮洽, 앞의 책, 77쪽.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60년사』 1권, 대영인쇄사, 2008, 274쪽.

보던 사상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난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4·3사건 때에는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가 보던 책들을 압수해 갔던 기억도 납니다.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일들임에 틀림없습니다.¹⁹⁾

광주로 건너 간 김광추는 許百鍊, 許行冕, 許樾, 千鏡子, 金容九, 襄貞禮 등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후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여전히 불안한 정국을 피해 다시 渡日을 한다. 1957년까지 일본에서 지냈는데 이 시기에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57년 부친의 간곡한 권유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방 전부터 줄곧 일본에서 살았던 것처럼 위장 수속을 하여 활어 운반선을 타고 귀국을 했다고 한다.²⁰⁾

1959년 김광추는 고영일, 김용수, 부중휴, 이경희, 이동성 등과 함께 제주사우회를 창립하였다. 그 해 11월 21일 제주시내 남궁다방에서 창립전을 개최하였는데 회원 합동사진전으로는 제주에서 첫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사우회는 얼마 못 가서 1964년 제주사진예술동호회로 재결성되었다. 1967년 제주사진예술동호회는 김광추, 홍정표, 임석제, 김용수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명칭도 제주카메라클럽으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²¹⁾

1960년 12월 12일에 열린 제3대 도의회위원 선거에서 김광추는 무소속으로 당선 된다²²⁾. 이 때에 4·3 당시 생명의 은인이었던 신두방도 함께 당선이 된다. 다음 해 5·16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당선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치·사회적으로 김광추가 제주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김광추는 현중화, 양중해, 이완규, 문기선 등과 제주도 최초의 서예 모임인 淡淡會를 결성하였고, 1965년 담담회를 계승한 瀛洲研墨會를 창립할 때에는 창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영주연묵회의 초대 회장은 홍정표가 맡았고 김광추는 2대 회장이 되어 10여 년간(1974~1983) 회장으로서는 영주연묵회를 이끌어 가면서 제주 최초의 서단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19)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 보고서, 2011, 114~115쪽에서 재인용.

20) 김석윤의 증언(2014년 4월 17일).

21) 강정효, 『삶과 문화』 3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23쪽.

22) 제주도, 『도제 50년 제주실록』, 나우인쇄출판사, 1997, 183쪽.

김광추(무소속, 농업)의 득표 수는 2,732표이며, 12월 22일 개최하여 5·16으로 인해 6개월이 안되어 해산을 하게 된다(당선자 민주당 3, 신민당 1, 무소속 14명).

1970년 초부터 김광추는 현중화에게 본격적인 후학지도를 권고하였다. 이에 서예에 뜻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중화의 허락을 얻어 1973년 5월 濟州素墨會 창립을 추진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고, 김광추는 소묵회의 유일한 고문으로 추대되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²³⁾

1977년에는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 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소탈했던 김광추는 수상을 거부하고 타인에 양보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수상하게 되어 상금 전액을 제주도 미술전람회에 쾌척하여 ‘聽灘賞’이 제정되기도 했다.

<圖 3> 潮風閣



1983년 7월 1일 私第인 潮風閣에서 영면하여 화북동 대락동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圖 3>

2. 교유 관계

1) 제주 지역의 인물

(1) 洪貞杓(1906~1992)

김광추가 서예·사진·전각 등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보이면서 활동을 했던 것처럼 김광추와 지속적인 교유를 한 만농 홍정표 역시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김광추는 전각을 일반 도장 정도로 인식하던 제주 서예계에 고인보와 자료 등을 통해 직접 확인시키면서 전각의 씨를 뿌려 장려하

23) 허연옥, 「소묵회의 은인, 청탄선생」, 『월간 관광제주』 제23호, 1986, 39쪽.

였는데 이러한 김광추의 전각예술은 홍정표가 뒤를 이었고 홍정표의 刀脈은 이 범구가 잇게 되었다.²⁴⁾

瀛州主人이라고도 불렸던 홍정표는 1907년 제주시 이도2동에서 4남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연농 홍종시의 손자이기도 하다. 그는 제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교사생활을 했던 교육자였다. 이와 함께 1955년부터 1962년까지 제주도미술협회 부회장, 1959년 창립된 제주문학협회 초대 회장, 1964년의 제주산악회 초대 회장, 1965년 영주연묵회 초대회장, 1966년에는 제주미술관의 창립 관장을 거치면서 교육자, 예술가, 민속학자로서 제주 문화예술의 전반에 걸쳐 기여하였다.²⁵⁾

홍정표의 글씨는 조부인 연농 홍종시의 서풍을 따랐는데 古拙淳朴한 전서에 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종시는 筆匠이자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朴癸瞻을 모셨다. 그 과정에서 180개나 되는 추사의 도인을 모은 『阮堂印譜』를 한때 홍종시가 지니고 있었음을 위창 오세창(1864~1953)이 1943년(80세)에 기록한 『완당인보』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²⁶⁾ 이 부분에서 홍정표가 홍종시를 통해 제주 서단에서 미미하게나마 추사 김정희의 서풍과 각풍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홍정표는 1951년부터 순수기록의 전통 민속·풍속사진을 찍었으며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가 창립하게 되는데 이때 홍정표는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59년에는 김광추는 홍정표를 비롯하여 김용수·고영일·부종휴·이경희·이동성 등과 함께 제주 첫 사진동호인 모임인 제주사우회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남궁다방에서 창립전을 열었는데 회원사진전으로는 제주 최초였다.²⁷⁾

홍정표는 1965년 7월 창립된 영주연묵회의 초대회장을 맡았고, 김광추가 2대 회장을 맡은 1974년 12월에는 현중화와 함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과 교유는 초기 제주 서단의 형성과 발전은 물론 제주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기여하게 되었다.

24) 전성호, 「청탄선생과 제주 전각」, 『월간 관광제주』 제23호, 1986, 44~45쪽.

25) 강정호, 『삶과 문화』 3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22쪽.

26) 유홍준, 『완당평전』 2, 학교재, 2002, 445~447쪽.

27) 제주도, 『濟州道誌』 第6卷, 2006, 333쪽.

(2) 玄中和(1907~1997)

김광추가 제주 서단에서 거론될 때 항상 함께 회자되는 인물은 현중화다. 이들은 영주연묵회를 함께 창립하였고 제주소묵회의 창립을 함께 하면서 평생을 가깝게 지냈다.

소암 현중화는 일제 강점기 서예가로는 드문 유학과로 왕희지 행초서 중심의 晋唐古法을 六朝楷로 混融해냄으로써 典型과 野逸의 아름다움을 지닌 소암체를 완성했다. 이로 인해 소암은 한국서단에서 碑·帖 혼용이라는 세계 서예의 흐름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현중화는 1907년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태어났다. 한학자요 의생으로 서귀면장을 지낸 부친 玄至濬은 현중화가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중용』, 『대학』, 『맹자』 등을 가르쳤다. 1924년 현중화는 渡日하여 桃山中學校와 東京巢鴨商業學校를 거쳐 1932년에 早稻田大學 정경학과 전문부에 입학하였다. 1937년부터 1948년까지는 일본 서도의 대가인 마쓰모토 호스이(松本芳翠)와 쓰지모토 시유(辻本史邑)를 사사하였으며 1955년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서예활동을 하였다.

1955년 귀국한 현중화는 제주사범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고 제주대학에서 논리학 강의를 하였으며 서귀중학교로 이직하는 1957년에는 국전에 ‘十五夜望月’을 출품하여 입선을 했으며 2년 후에는 추천작가가 되었다. 그 후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거치게 되는데 73세가 되는 1979년 국전 심사위원으로서 ‘古詩’를 출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서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5년에는 김광추 등과 함께 영주연묵회를 창립하였고 이후 김광추의 지속적인 권유에 의해 제주·목포·서귀포·광주·대구 등 지역에 소묵회를 창립하여 지도활동을 해나가면서 제주 서단은 물론 한국 서단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때 김광추는 소묵회의 고문으로서 현중화와 함께 했다. 현중화는 당대 문인 및 선승들과도 폭넓은 교유를 가졌는데, 김광추를 비롯하여 허백련·허건·손재형·김충현·이기우·오제봉·고봉주·김철수·서용·탄허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제주에서 김광추와 지속적으로 교유하던 현중화는 1974년에 김광추의 당호인 ‘조풍

28) 이동국, 『소암의 삶과 예술① 달아달아』, 서귀포시·예술의전당, 2008, 8쪽.

각'을 써 주었고, 사후인 1986년에는 '탄향유구'라는 작품을 써서 김광추 3주기 추모특집호에 실었다.²⁹⁾ <圖 4> · <圖 5>

현중화는 1969년에 제주도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영면하게 되는 1997년에는 허백련예술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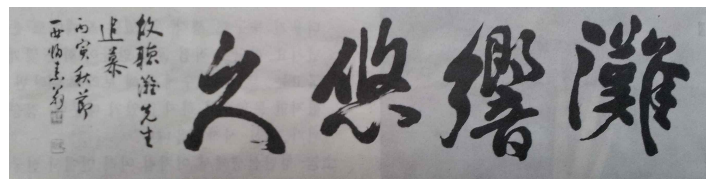
<圖 4> 현중화 「潮風閣」懸板



<圖 5> 현중화 「灘響悠久」

(3) 梁寅玉(1926~1999)

양인옥은 제주도 도두동 태생이다. 1938년에 부친을 따라 渡日하여 시나노



마시(信濃橋) 미술연구소에서 그림공부를 시작했고 1942년 오사카미술학교 서양화부에 입학했다. 1947년에는 5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여 전후 혼란을 피해 귀국하였다.

제주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실주의의 그림을 그리다 진도농업초등학교(현 진도서중) 교사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광주 제일고 교사, 목포교육대학, 호남대 학장 및 총장을 거치면서 한국화단에 족적을 남겼다.

양인옥은 생전에 7회의 개인전을 가졌는데 제주도에서 열린 전시회는 두 차례로 나타난다. 1965년의 첫 개인전은 목포와 제주를 순회하면서 가진 전시회였다. 당시 제주에는 1955년 창립된 제주도미술협회를 중심으로 화단 구성이 제도적 정비 단계로 접어들던 시기였다. 김인지, 홍정표, 박태준, 조영호, 홍완표, 장희옥 등 대부분 일본 유학파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작가로 활동하던 때였던 것이다.³⁰⁾ 또한 1965년은 김광추가 현중화, 홍정표 등과 함께 영주연묵회를 창립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회화와 서예라는 장르를 벗어나 상호간에 자극제가 되어주면서 발전적인 예술교유를 가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양인옥의 두 번째 제주도 전시는 1981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남양미술회

29) 오문복, 「나는 이 선각자를 존경합니다」, 『월간 관광제주』 제23호, 1986, 23쪽.

30) 김영호,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작고작가 양인옥·변시지)』, 제주도립미술관, 2014, 56쪽.

관³¹⁾에서였다. 이 전시는 김광추가 주선하여 남양미술관에서 ‘양인옥 서양화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때에는 「한라산」, 「초가」, 「중산간 지대 설경」 등 제주 풍경을 위주로 그린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전시 초대어 글에서 그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데 그는 “고향을 떠나 살면서도 고향의 정취를 화폭에 담기 위해 계절마다 고향을 찾아 스케치하는 일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전시 한 해 전인 1980년 양인옥은 제주도 여행과 전시를 계기로 300호의 대작 벽화 작품인 「한라산의 조춘」과 150호의 작품 「한라산의 봄」을 제작하기도 했다.³²⁾

전시회를 주선한 김광추는 ‘양인옥 서양화전’의 추천어 글에서 “양인옥 화백은 뽀뽀 줄도 모르고 자랑할 줄도 모르는 너무나 소박한 성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제주도가 낳은 서양화가라는데 깊은 친밀감을 갖게 해줍니다.”³³⁾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광추는 일찍이 서양화를 배웠으며 서양화에 대한 안목도 있었기에 양인옥 등 서양화가와의 자연스러운 예술 교류를 통해 제주 미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4) 朴泰俊(1926~2001)

김광추·현중화와 함께 제주 서단을 이끈 인물 중 海丁 朴泰俊을 빼놓을 수 없다. 제주시 용담동 출신인 박태준은 일본 오사카시립미술학교에서 양화부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여 1948년 4월 1일부터 제주북교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나 4·3의 발발로 인해 중도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전시는 제주근대미술사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오현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반을 조직하며 미술교육에 열의를 가졌다. 1955년 2월 제주도미술협회가

31) 제주시 삼도2동에 소재했던 남양미술회관은 1980년 제주문화방송 사옥을 제주시 연동 새 사옥으로 이전한 후 옛 사옥을 전시실로 꾸며 9월 20일 개관했다. 1982년 문 닫을 때까지 무료 대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시 유치로 통해 제주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

32) 김영호,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작고작가 양인옥·변시지)』, 제주도립미술관, 2014, 56~58쪽.

33) 김유정·전은자,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작고작가)』, 제주도립미술관, 2012, 55쪽.

창립되었을 때 총무로서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1회 개인전 이후에는 서예가로써 국전에 출품하여 특선 3회와 입선 15회의 수상을 하였다.³⁴⁾

박태준은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한국서예가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서예 발전에 공로가 크다. 특히 후학들을 지도함에 있어 자신이 무엇보다도 역대 서첩을 중시했던 것처럼 臨書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筆·墨·紙에 자세를 더하여 ‘四位一體’를 강조하였다.³⁵⁾

박태준은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國會書道會와 尙筠會를 지도하였고, 제주에서는 正硯會를 지도하면서 제주도 출신 서예가들이 중앙 서단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태준이 제주에서 지도했던 정연회에서는 2002년 제주시 신산공원에 박태준을 기리는 목적비를 건립하였고 매년 추모전을 겸한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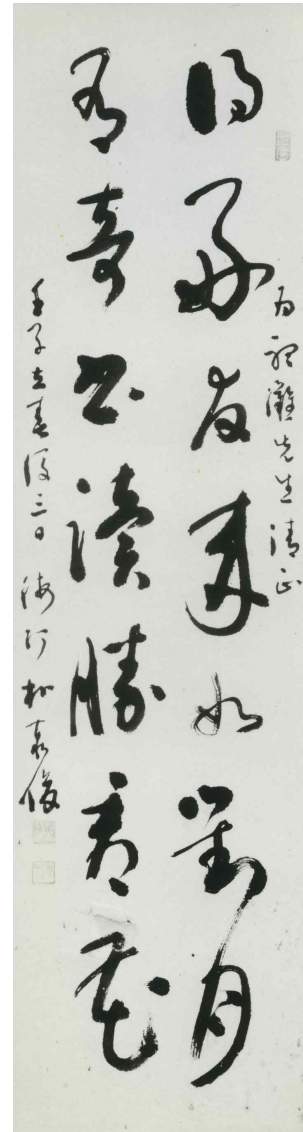
김광추와 박태준은 거주지역의 차이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신이나 연하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교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추를 위하여 박태준이 써준 행서작품을 통해 둘 사이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圖 6>

得好友來如對月 좋은 친구가 찾아오니 달을 대하는 것 같고
有寄書讀勝看花 보내준 편지를 읽으니 꽃을 보는 것보다 낫다

(5) 文基善(1935~ 현재)

1963년 김광추는 조각가이자 서예가인 雨荷 文基善을 비롯하여 현중화, 홍정표, 이완규 등과 담담회를 만들어 후일 영주연묵회 창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65년 영주연묵회가 창립되었을 때 초대 총무를 문

<圖 6> 박태준
「得好友來」



34) 김영호, 위의 책, 33~34쪽.

35) 陳泰夏, 「如生の 草書」, 『海丁朴泰俊書集』, 守石軒, 書藝文人畫·(株)梨花文化出版社, 2005,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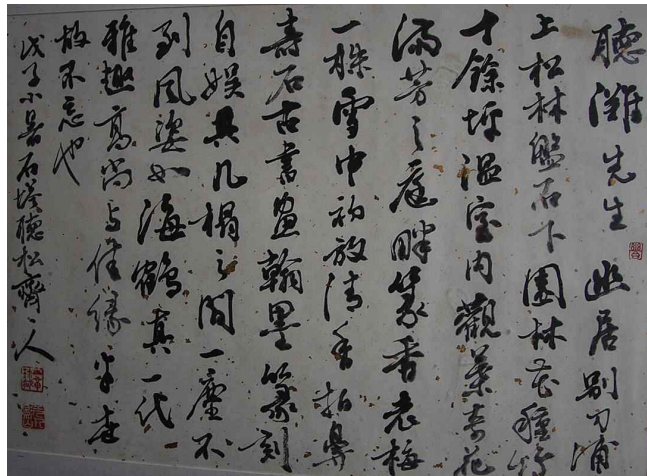
기선이 맡게 되었다. 특히 제주시내 요안다방에서 열린 영주연목회 창립전시회에 素笏 孫在馨(1903~1981)의 찬조작품 출품을 요청하여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때 참석한 손재형은 횡액 작품 「山海崇深」을 출품하고 제주 서예인들에게 「세한도」의 국내 환수 과정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10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³⁶⁾ 1973년 문기선은 제주소목회의 창립에도 관여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안방을 주 2회 열리는 소목회의 서예교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초기 제주 서단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문기선은 김광추의 온유한 성격을 통해 느긋함을 배웠으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4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김광추와 함께 할 수 있었다. 문기선은 현재 몇 남지 않은 제주 문화예술계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圖 7>은 문기선이 김광추를 ‘海鶴’에 비유한 서예작품의 내용이다.

聽灘先生 幽居別刀浦上 松
 林盤石下園林花種竹 十餘坪
 溫室內 觀葉奇花 滿芳之庭畔
 篆香 老梅一株 雪中 初放清
 香拍鼻 壽石古書畫翰墨篆刻
 自娛 其几榻之間 一塵不到
 風姿如海鶴 眞一代雅趣高尚
 與佳緣半世 故不忘也
 戊子 小暑 石塔 聽松齊
 人³⁷⁾

<圖 7> 문기선 「聽灘先生」



(6) 吳成贊(1940~2012)

평소 조풍각을 자주 왕래하며 김광추에게 전각인을 선물 받기도 한 오성찬³⁸⁾

36) 문기선의 증언(2014년 4월).

37) 청탄선생은 별도포에 산다. 소나무 숲과 반석 아래 정원의 숲에는 꽃과 대나무를 심고, 10여 평의 온실 안에는 관엽 식물과 기이한 꽃을 기른다. 향기가 가득한 뜰 가에는 진향(篆香)의 늙은 매화 한 그루가 눈이 오는 가운데 막 맑은 향기를 뿜어 코끝에 전해지고, 수석과 고서화와 붓글씨와 전각을 절로 즐기니 그 책상에는 티끌 하나도 이르지 않는다. 진정 한 세대의 고아하고 고상한 풍취이다. 풍모와 자태가 바닷가의 학과 같아 더불어 맺은 인연 반평생이기에 잊을 수가 없다.

무자년 소서에 석탑 청송제인

은 신문사 기자, 소설가 등으로 활동했다. 오성찬은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태어나,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연구원 및 제주역사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 후반기를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4·3문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에 이르며,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소설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는 공산폭동으로 규정한 국가권력의 공식 역사가 흔들리면서 제주인들의 억눌렸던 진상규명 의지가 분출됨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며 당시 한국사회 전반에서 전개된 민주화 열풍과도 관련이 있다.³⁹⁾

김광추는 오성찬이 제주신문사 문화부기자 시절 처음 만나게 되었다. 1945년 제주신문 창간에도 관여한 김광추의 집에는 항상 일찍 피는 매화가 있어 봄의 전령사로 지면에 자주 소개가 되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 과정에서 김광추는 자신의 예술관과 자신이 직접 겪었던 제주 사회를 오성찬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이 오성찬이 제주지방 문학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전각으로 몸이 굳어진 탓인지 웅크린 듯한 자세로 앉아서 얼굴에 가끔 경련을 일으키셨다. 그것이 처음 그를 가까이 대한 인상이었다. 마당엔 비둘기가 날고……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어렵지 않았다. <중략>

“오선생, 책 끝에 판권 도장은 어떤 걸 쓰고 이서?” 하고 물으셨다. 이미 나는 첫 창작집 「별을 따는 사람들」을 낸 다음이었고, 그 창작집의 끄트리에 마구다지 도장을 찍어놓고 있었다. 내가 사실대로 대답을 하자 “내 도장을 하나 파주주.” 하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중략>

손님이 없고 한가한 날은 두루마리로 말아두었던 글씨를 펴서는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하셨다. “작품은 아니지만 기념으로…….” 이럴 때 선생께서는 꼭 토를 다셨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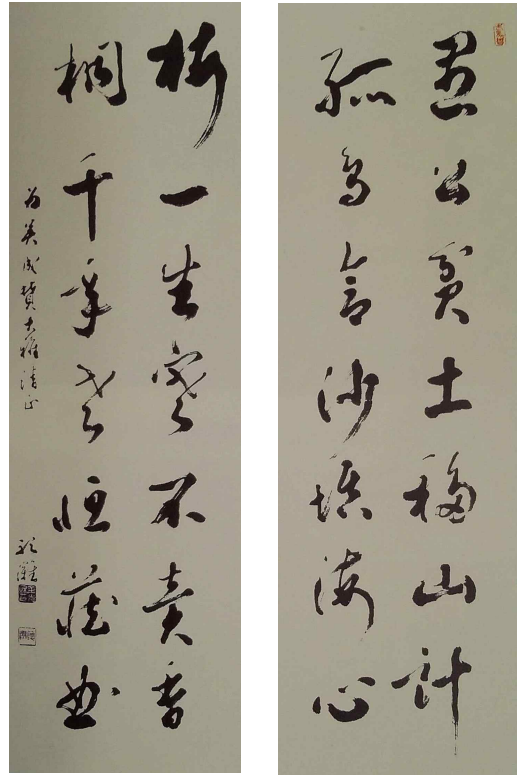
38) 1969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별을 따는 사람들」 당선. 신문기자 및 소설가로 활동하고, 제주 역사연구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지냈다. 소설집 『한라산』, 『어두운 시대의 초상화』, 『진혼아리랑』,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나비로의 환생』, 『세한도』,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고, 요산문학상·한국소설문학상·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39)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하, 도서출판 보고사, 2011, 277쪽.

40) 오성찬 외, 『金光秋선생 서거 3주기 추모특집 自然人 聽灘』, 『월간관광제주』 제23호, 1986, 27~28쪽.

위의 글은 오성찬이 김광추를 회고한 내용 중 일부로 평소 소박한 삶을 살았던 김광추가 오성찬을 비롯한 지인들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소박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圖 8>은 행서 대련 작품은 김광추가 오성찬을 위하여 써 준 가리개이다.⁴¹⁾

<圖 8> 김광추 「愚公·梅一」



2) 기타 지역의 인물

김광추는 1948년 4·3사건으로 제주가 혼란에 빠지자 光州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당시 광주와 부근에서 활동하던 허백련, 허행면, 허건, 천경자 등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유치환, 송성용, 서정주, 안광석, 서세옥, 고은 등 각지의 인사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가졌고, 막역한 사이가 되어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⁴²⁾

이들과 교류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48년 이후인 것만은 아니다. 장남 김석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도 자주 광주를 왕래했던 김광추는 1948년 4·3 시기 이전에 허백련, 허건과는 이미 교류를 시작했었다고 한다.

이들과의 교류가 인연이 되어 김광추는 다수의 작가를 제주도에 초청하여 전시회를 주선하였다. 허건은 제주 시내 원다방에, 襄貞禮는 난다방, 金容九는 청담다방에 각각 초청하여 전시회를 주선하였다.⁴³⁾ 그리고 이러한 전시 행사가 있게

41) 오성찬, 『오성찬문학선집』 11권 작가·작품론/앨범/연보, 푸른사상사, 2006, 241쪽.

42) 김광추의 교류인물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오성찬, 「20세기 제주예술을 이끈 청담 김광추」, 『감귤원예』 172호, 1977, 60쪽.

吳津滋, 「청담선생 行狀」, 『월간 관광제주』 제23호, 1986, 33~34쪽.

오성찬, 『20세기 제주사람들』, 도서출판 반석, 2000, 204쪽.

金榮洽,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도서출판 조원사, 2000, 94쪽.

오장순, 「제주의 예술인 탐구 聽灘 金光秋」,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23쪽.

그러나, 이들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김광추의 제주도 이외의 인물들과의 교류 시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3) 문기선, 「聽灘先生을 기리며」, 『제주예술』 제4집, 예총제주도지회, 1991, 33쪽.

되면 김광추는 제주도내 지인들을 불러 작품을 사줄 것을 권유하는 등 전시참여 작가들과 지역민들이 소통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도에 경향 각지의 작가와 예술작품을 소개한 김광추의 활동이 전시문화의 활성화 등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1) 許百鍊(1891~1977)

김광추와 의재 허백련은 1947년 이전부터 서로 교류하였다. 구체적인 교류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허백련의 문하생인 許斗正이 1947년 7월 제주북국민학교에서 동양화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김광추와의 인연으로 인한 것이었다.⁴⁴⁾

허백련은 珍島에 처음 자리잡은 陽川 許垚의 12대 손이며 현재 진도에 있는 大·中·季 三派 중 계파에 속하고 허련과 허형, 허건은 중파에 속한다. 허건은 22寸이면서 허백련의 조부 뺨이 된다.⁴⁵⁾ 허백련은 11살 되던 1901년부터 雲林山房에서 미산 허형의 지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림공부를 시작했다.

허백련은 일본 유학을 통하여 신교육과 신문화를 체험했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편승을 거부하고 전통을 중시한 인물이다. 그는 허형을 시작으로 소치 허련, 추사 김정희, 大癡 黃公望 등을 통해 예술정신을 깨우치고, 작품을 臨寫하면서 남종화의 발전에 앞장섰다.

김광추는 광주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허백련과 아침 저녁으로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허백련의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방향을 터득하기도 했다.⁴⁶⁾ 이들의 교류 과정에서 김광추는 허백련과 현중화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이후 허백련과 현중화 역시 막역한 사이가 되어 허백련은 현중화에게 직접 키운 녹차인 春雪茶를 보내기도 했으며 상대방의 堂號를 서로 써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었다.

현재 허백련의 작품 「寧靜致遠」·「文字香書卷氣」 등을 김광추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圖 9>

44) 김유정, 『제주문화예술 60년사』 1권, 제주특별자치도, 2008. 191쪽.

45) 李勳, 「毅齋一代記」, 『毅齋 許百鍊 作品과 生涯』, 全南日報社, 1977, 177쪽.

46)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禾北』 11호, 하나인쇄, 2014, 12쪽.

<圖 9> 허백련 「寧靜致遠」



(2) 許榭(1908~1987)

김석윤에 의하면 부친은 그의姑母가 광주에서 살았던 관계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광주를 자주 드나들었다. 따라서 김광추가 교유했던 제주도 이외의 어느 인물보다 남농 허건을 먼저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서로 호형호제 하면서 오랜 기간 교유를 지속하여 왔다.

허건에 의하면 김광추가 서예를 하고 자신은 서화를 하면서 자연 상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광추가 정원·돌·분재 등을 좋아해서 허건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았기 상합하게 되었으며 제주도에 가면 언제나 김광추를 찾았다고 한다.⁴⁷⁾

허건은 조부인 소치 허련(1808~1893)의 畫論을 바탕으로 6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였다. ⁴⁸⁾ 허련의 그림에 대해 추사 김정희는 압록강 동쪽, 즉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다고 극찬하면서 그를 인정했다. 허련은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절인 1841년(헌종 7, 34세), 1843년~1844년(헌종 9~10, 36~37세), 1847년(헌종 13, 40세) 세 차례에 걸쳐 제주를 찾았다. 그것도 일회성의 방문이 아니라 첫 번째는 5개월, 두 번째는 7개월 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정희를 모셨다.⁴⁹⁾ 그 과정에서 허련은 「五百將軍岩」이라는 제주 최초의 진경산수를 그리기도 하였다. <圖 10>⁵⁰⁾ 이처럼 허련 가문의 제주와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제 간의 존경과 의리는 손자인 허건에게도 이어져 허건의 집에는 문인, 畫友 등의 예술가는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도지사·시장·군수 등 정치가들

47) 오문복, 「남농이 말하는 청탄 - 청탄은 나의 스승」, 『월간 관광제주』 제 24호, 1986, 123쪽.
 48) 도미자, 「南農 許榭의 生涯와 山水畫」,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3, 98쪽.
 49) 김상엽, 「小癡 許鍊(1808~1893)의 生涯와 繪畫活動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63~64쪽.
 50) 탁현규, 「五百將軍岩」, 『澗松文華 진경산수화』, 간송미술문화재단, 2014, 239쪽.

도 자주 드나들었다.

허건이 활동한 시기는 우리나라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시기였다. 선전과 국전 참가는 물론 추운 방에서도 강행한 작업의지로 골습병을 얻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할 만큼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1946년에는 南畵研究院을 개설하여 후진 양성에도 정성을 쏟아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이 때 주요 제자로는 趙邦元·辛永卜·金明濟·郭南培·李沃城 등을 들 수 있다.

김광추의 주선으로 허건은 제주의 현중화, 문기선, 양중해, 서상형(당시 평주원 사장), 이완규(당시 제주KBS 방송국장) 등으로 인사 교유의 폭을 넓혔고, 함께 전시회도 개최하면서 교유를 계속해 나갔다.⁵¹⁾

허건의 제주와의 교류를 보면 45세가 되는 1952년 제주에서 연목회 초청 개인전을 열었으며, 1961년(54세)에는 제주미술연구회 초대전을 가졌다. 그리고 1975년(68세)에는 제주신문사 주최 제1회 제주도미술전람회에 출품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⁵²⁾

김광추는 언제나 소인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글씨를 써 주거나 전각을 새겨주어도 그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작가들이 작품 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못 마땅하게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허건이나 현중화는 그러한 김광추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좋아하면서 어려웠었다고 한다.⁵³⁾

<圖 10> 許鍊 「五百將軍岩」



<圖 11> 허건 「蘭花」



51) 현영모, 「남농과 소암, 그리고 제주와의 인연」, 『남농 허건, 소나무야 소나무야』, 신우문화인쇄, 2014, 50쪽.

52) 李龜烈 외, 『韓國近代繪畫選集 韓國畫 7·許百鍊/許健』, 金星出版社, 1990, 153~157쪽의 年譜.

53) 오성찬, 『20세기 제주사람들』, 도서출판 반석, 2000, 201쪽.

작품 <圖 11>과 <圖 12>는 허건이 김광추에게 그려 준 작품으로 현재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

<圖 12> 허건 「雪景」

(3) 柳致環(1908~1967)

앞에서 김광추는 무정부주의를 신봉했던 고순흙 등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김광추는 광주 생활 이후 청마 유치환과 교유하게 된다. 경상남도 거제도가 고향인 유치환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인 서정주와 더불어 당시에 영호남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서예와 전각을 주로 하던 김광추였지만 그의 예술 교유의 영역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그 폭이 넓었다.

김광추와 유치환은 대자연 속에서의 실존에 대한 모색과 현실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권위에 대한 거부, 정부 및 국가에 대한 혐오, 상호부조, 소박성 등과 같은 아나키즘의 모든 교의의 원천은 자연이다. 즉 원시적 원형으로서의 자연, 무위·무한으로서의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유치환은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아나키즘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아나키즘의 실천이었다. 3·15 부정을 저지른 자유당 정권에 대항하다 경주고 교장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4·19의거에 동참하기도 했다.⁵⁴⁾

또한 김광추와 유치환은 또 다른 면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김광추는 조풍각에서 항상 풀과 나무를 가꾸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정을 베풀었다. 유치환 역시 생명을 지닌 한 한갓 풀포기나 나무에 지나지 않는 미물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의 엽을 가지고⁵⁵⁾ 살았던 생명파 시인이었던 것이다.



54) 朴珍嬪, 「유치환 시의 아나키즘적 특성 연구」, 大田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1, 203~204쪽.

유치환의 ‘생명’은 그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관통해 볼 때 사랑에 그 기원이 있다. 유치환의 시는 생명의 시이자 사랑의 시인 것이다. 그의 생명의 시학은 사회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로 확대되기도 한다. 4·19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동아일보에 자유를 노래 부르지 못하고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비참함을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로 절규하기도 했다.⁵⁶⁾

김광추와 유치환의 교유 흔적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세 살 차이의 비슷한 연령대로서 일본 유학파이기도 한 이들의 교유는 주위 인사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宋成鏞(1913~1999)

김광추를 위하여 쌍낙관을 한 강암 송성용의 작품에서 둘 사이의 예술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圖 13>

송성용은 근현대 국내의 서단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篆·隸·楷·行·草 5체를 두루 잘 쓴 서예가이다. 또한 사군자인 梅·蘭·菊·竹은 물론 松·蓮·芭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인화를 구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굳게 지키며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현대미가 충만한 서예활동을 하였다.⁵⁷⁾

<圖 13> 송성용 「風竹」



(5) 徐廷柱(1915~2000)

김광추를 위해 미당 서정주가 자신의 시를 소필로 직접 쓴 작품 한 점이 조풍각에 소장되어 있어 둘 사이의 예술교유의 정을 짐작하게 한다.<圖 14>

55) 오세영, 『유치환, 휴머니즘과 실존 그리고 허무의 의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207쪽.

56) 정호승, 「영원히 필러이는 그리움의 깃발」, 『깃발, 나무끼는 그리움』, (주)교보문고, 2008. 192~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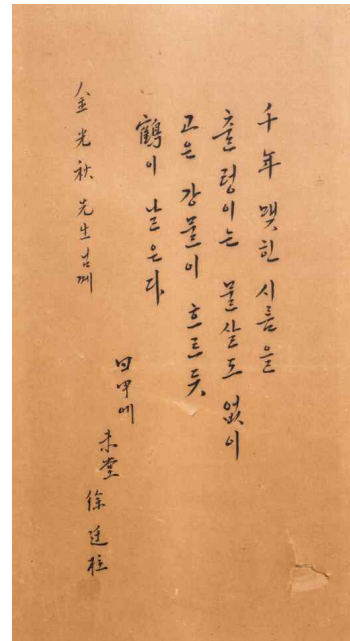
57) 김병기, 「한, 중, 일 3국 서예와 강암 서예의 위상과 정신」, 『剛菴은 정신이다』, 전북도립미술관, 2014, 197쪽.

千年 맺힌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은 강물이 흐르듯 鶴이 날은다

<圖 14> 서정주 「학」

위 시구는 1956년 간행된 『서정주시선』에 실린 작품 「학」에서 전문 8연 중 제 1연의 내용이다. 이 시기에 서정주는 주로 자연과의 조화로움과 달관한 인생에 대한 내용의 시를 창작했다.

‘학’은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새로 비유되어 왔다. 서정주는 민족적 恨의 상징적 모습으로 ‘학’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시에서 ‘학’의 시름은 어제 오늘의 시름이 아니라 ‘천년 맺힌 시름’이다. 1950년도의 6·25라는 수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동족 상잔의 비극의 한 부분을 체험했던 작가 자신의 인고의 세월을 한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지양하고 달관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날아오르는 ‘학’은 인생역정에 대하여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살았던 김광추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서정주의 제주와의 인연은 1937년 봄부터 시작된다. 그는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머무르면서 「濟州道の 한여름」, 「제주도에서」, 「地歸島」詩 등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6) 安光碩(1917~2004)

김광추는 1970년에 청사 안광석의 ‘청사전각전’을 제주문화방송 초대전으로 열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1981년에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남양미술회관에서 안광석의 갑골문, 와당문 등 서예 작품 60여 점으로 이루어진 ‘晴斯 安光碩 契刻書展’이 열리기도 했다.⁵⁸⁾

안광석은 1917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1937년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한 전각가이자 서예가이다. 그는 3·1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자 서예가인

58) “安光碩씨 契刻書展”, 제주신문, 1981년 12월 14일, 5면.

위창 오세창(1864~1953) 문하에서 금석문과 전각을 사사했다.

오세창은 조선후기 역관을 지낸 吳慶錫(1831~1879)⁵⁹⁾의 아들로,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이 서화에 대한 안목이 높았다. 이는 추사 김정희와도 연결된다. 김정희는 부친을 따라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조선에 문인풍을 유행하게 하였는데, 이를 오세창의 부친 오경석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⁶⁰⁾

김광추는 안광석과의 교류를 통하여 폭넓은 전각의 세계를 접하면서 제주 전각계를 활성화시켰다. 그것은 김정희-오경석-오세창-안광석의 사승관계를 교류과정에서 김광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구체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추는 교류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각가들을 안광석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제주도의 전각가들이 안광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⁶¹⁾ 따라서 안광석은 제주도에서의 작품 전시회와 전각가들에 대한 지도를 통해 제주 전각계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 김광추는 단절되었던 제주 전각의 맥을 이을 수 있었다.

1997년 안광석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전각 920顆를 포함하여 소장품 1,027점을 기증했다. 그리고 안광석을 사사한 페터 회셀레(Peter Höschele)는 2012년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내 최초의 문화유산 사후기증을 약속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증품으로는 청사 안광석 인수인 61점을 비롯하여 한국의 봉함인 133점, 죽장 및 촛대 등이 있다.⁶²⁾

현재 조풍각에는 안광석의 서예 작품인 「室以·簾上」과 전각 작품첩 「般若波羅蜜多心經」·「愛蓮說」·「蘭亭序」 등이 소장되어 있다. <圖 15> · <圖 16>

59) 오경석의 본관은 海州, 자는 元秬, 호는 亦梅, 鎮齋, 天竹齋. 서화수집에 힘을 기울여 소장품이 많았으며 봉사하여 견경에 다녀왔으며, 금석학에도 밝아서 저서 『三韓金石錄』이 있다. 오경석의 예서로 '祝壽詩畫', 행서 '對聯' 등이 전하고 있다(김광욱, 『韓國書藝學史』,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9, 310~311쪽).

60) 이동민, 『한국 근·현대 서예사』, 수필과 비평사, 2011, 87쪽.

61) 전성호의 증언(2015년 6월).

62) 1937년 독일 베를린 출생으로 서울에서 독일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안광석과 一中 金忠顯(1921~2006)에게서 전각과 서예를 익혔다. 페터 회셀레는 부인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봉함인을 수집하여 2005년 『한국의 봉함인』을 발간하기도 하였다(정연학, 「보도자료-국내최초 문화유산 사후기증」, 국립민속박물관홈페이지, 2012. 9. 18. 1~4쪽).

<圖 16> 안광석 「般若波羅蜜多心經」



<圖 15> 안광석 「室以·簾上」



(7) 千鏡子(1924~)

김광추는 4·3시기 광주에서 천경자와도 교유를 하였다. 전라남도 고흥 출신인 천경자는 1941년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현 동경여자미술대학)에 유학하였다. 1944년 귀국하여 1946년 모교인 전남여자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김광추가 광주에서 생활하던 1949년에는 광주사범학교로 옮겼다가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천경자는 한국 근대 동양화단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여성적 공간을 열어 페미니즘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⁶³⁾ 1998년(74세)에는 채색화와 스케치 작품 93점과 직접 사용하던 화구·집기 등을 서울시에 기증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신축 개관 기념전으로 「천경자의 혼」을 개최하였다.⁶⁴⁾

김광추와 천경자의 구체적인 교유 사실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광주에서 천경자와 막역한 사이를 유지했던 허백련·허건·서정주·고은 등과의 교유 과정에서 김광추와도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63) 박경미, 「천경자 회화의 페미니즘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8쪽.

64) 정중현, 『천경자 평전-천경자의 환상여행』, 도서출판 나무와 숲, 2006, 124쪽.

(8) 徐世鈺(1929~현재)

김광추는 조풍각에서 풀, 꽃, 나무, 연못 등을 가꾸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써 준 작품의 댓가도 바라지 않았으며 미술 전시가 열리게 되면 미리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며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조풍각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일 날이 없었다. 이러한 면은 김광추와 교유했던 산정 서세옥의 예술 세계에서도 엿보인다.

서세옥의 예술에 대한 지향점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뻐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群像이었다.⁶⁵⁾

『사람들』이라는 연작을 지속해 온 이유에 대해서 서세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무릇 그림에서 산수나 인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서술 방법에 불과합니다. 물을 칼로 토막 낼 수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산수나 인물이나 모든 것은 하나의 자연으로 영겨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쓰기 위해서 나누는 것인데, 그렇게 고정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연·인간 등으로 사물을 서로 상대적으로 보는 것은 서양적인 발상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자연과 인간을 나누어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림의 대상이었어요. 아마도 나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간, 그것을 자연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 동양의 정신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는 모든 인간, 거기에 국경이나 종족 따위는 아주 초월해버리는 인류라는 의미로 우리들의 모습을 무엇보다 즐겨 그리고 싶습니다.⁶⁶⁾

서세옥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본래 인간이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탯줄이 잘리고 독립하지만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일 뿐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서 다 같이 형제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⁶⁷⁾

65) 유희승, 「선전과 ‘국전’의 인물화 연구 : ‘동양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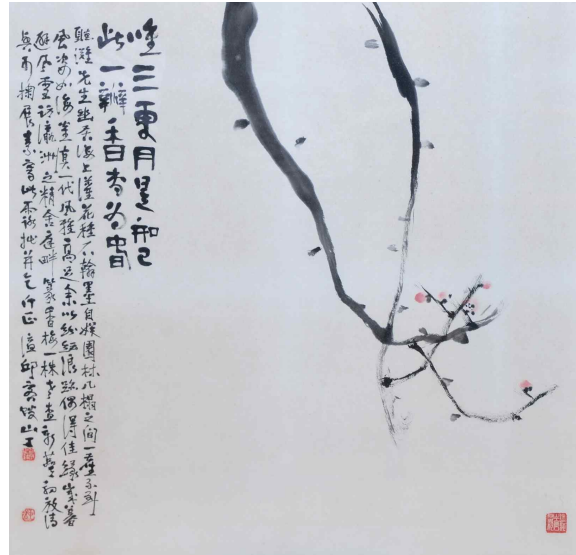
66) 김정환, 『필묵의 황홀경』, 도서출판 다운샘, 2007, 28쪽.

67) 정윤희, 「서세옥의 작품으로 고찰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담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5쪽(김남수, 「정제와 절제의 극치, 인간을 주제로 한 조형주의 - 산정 서세옥의 작품세계」, 『미술세계』 제119호, 1994, 98쪽 재인용).

김광추의 평소 생활 방식과 서세옥의 예술 지향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서세옥의 김광추를 위한 쌍낙관의 「매화도」에서 둘 사이의 교분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畫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圖 17>

<圖 17> 서세옥 「梅花圖」

唯三更月是知己 此一瓣香專爲春
聽灘先生 幽居海上 灌花種石翰
墨自娛 園林几榻之間 一塵不到 風
姿如海雀 眞一代風雅高足 余以紛
紜浪跡 偶得佳緣 歲暮 避風雪 訪
瀛洲之精舍 庭畔 篆香梅一株 老鬱
新萼初放 清興可掬 展素寫此 露拙
并乞斤正 瀛邱客館 山丁⁶⁸⁾



(9) 高銀(1933~현재)

김광추는 1963년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사찰인 원명선원의 초대 신도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1964년 원명선원에는 제주도 최초의 현대식 건물로 불리워지는 3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4·3과 6·25를 거친 혼란기 제주도의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금강고등공민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는데 이 때 교장 겸 국어·미술 교사로서 시인 고은이 4년간 활동하였다.⁶⁹⁾ 이 시기에 평소 학교교육에 관심을 쏟았던 김광추와 고은은 자연스럽게 교유를 하게 되었다.

고은은 1958년에 문단에 등단하였다. 1950년대 후반은 한국 문학계가 전쟁이라

68) 畫題：한밤중의 달만이 나를 알아주는 벗이고, 이 한 떨기 향기만이 오직 봄이로세.
并序：청탄선생은 바닷가에 조용히 살고 있다. 꽃에 물을 주고 돌을 돌보며 글씨 쓰기를 절로 즐기니 정원의 숲과 책상에는 티끌 하나도 이르지 않는다. 풍모와 자태가 바닷가에 사는 학과 같아서 진정 한 세대에 있어 속됨을 벗어난 고아한 자취이다. 나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인연을 얻게 되었는데, 한 해가 저무는 겨울에 풍설을 피해서 영주(제주)의 정사(청탄선생의 집)를 방문했다. 뜰가에 전향(篆香)의 매화 한 그루가 늙어 가지가 우거졌는데 새 꽃잎을 막 피워 맑은 흥취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 하얀 종이를 펼쳐 이것을 그려 줄렬함을 내보이며 아울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영구(제주) 객관에서 산정.

69) 고은, 『바람의 사상』, 한길사, 2012, 225쪽.

는 참상 속에서 절망감과 허무의식에 빠져 있던 시기이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 이르러 기존의 침체된 문단에 새로운 활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시인 김춘수, 김수영, 김규동, 고은 등은 시의 언어와 형태에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면서 전통의 변혁에 주력하였고, 또한 사회적 인식과

<圖 18> 沙羅展同人會 창립기념



현실 문제를 시 속에 포괄함으로써 인식의 확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⁷⁰⁾ 1965년 8월 28일에는 김광추, 고은 등은 사라전동인회를 창립하여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圖 18>⁷¹⁾

이후 1973년 고은은 제주도 출신의 최현식, 홍순만, 이영복 등에게 자료를 도움 받고 세대사에 「제주도」를 연재하는 등 국내 잡지 및 신문 등에 제주에 관한 글을 다수 발표하면서 제주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은은 201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고은은 앞에서 거론한 서정주, 천경자 등과 예술교유의 정이 깊었으며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인 오성찬, 시인 양중해, 소설가 최현식, 제주대 교수 현평효, 김영돈, 향토사학자 홍순만, 화가 강태석, 언론인 송상일 등과도 교유하였다. 또한 그는 스스로 ‘내 시의 개안이 있던 곳, 제주도’라고 회상하기도 했다.⁷²⁾

문기전에 의하면 고은은 김광추가 있었기 때문에 화북동에 머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러한 계기를 통해 고은이 『이중섭 평전』을 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김광추를 당시 제주 문화 전반의 문화기획자로 평하고 있다.⁷³⁾

70) 김현자,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4쪽.

71) 앞줄 왼쪽부터 홍정표, 김광추, 뒷줄 왼쪽부터 소설가 최현식, 시인 고은, 오현고 교장 고정일, 경진기업 사장 이태진, 사진작가 고영일이다(사진제공 김석운).

72) 고은, 위의 책, 326쪽·578쪽.

73)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禾北』 11호, 하나인쇄, 2014, 13쪽.

2015년 3월 고은은 제주에 입도하여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심사를 맡기도 했다.

이상으로 김광추의 제주도 내외 인사들과의 교류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광추는 서예가는 물론 서양화가·문인·언론인 등 다양한 장르의 인물들과 교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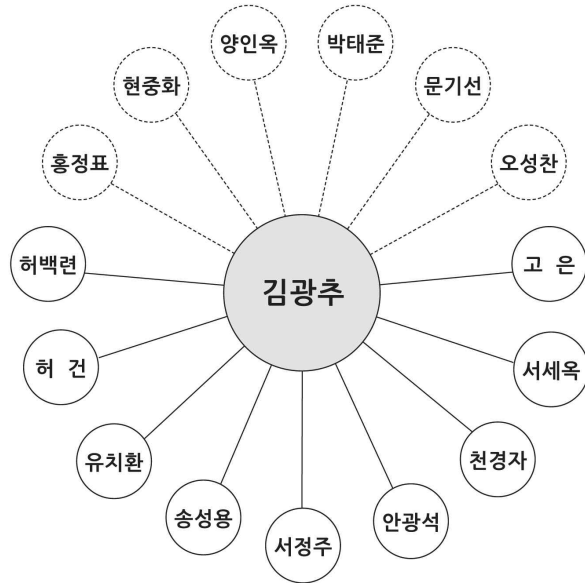
사진 <圖 19>⁷⁴⁾은 제주도의 서예가들이 서예전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이다. 서예가들 뒤로 전시되어 있는 서예작품들이 보인다.

김광추와 교류한 제주도내외의 인사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들은 상호간에 물질적으로도 기여하게 된다. 작품의 기증에서나 기금 마련을 위한 찬조 전시 개최의 경우를 보았을 때도 이들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써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78년에 홍정표는 신발 등 42점을 기증했고, 1985년에는 서세옥의 ‘생존’, 송성용의 ‘만리풍차’, 안광석의 ‘녹금강경’, 허건의 ‘송노수익’을 기증하였으며, 오성찬은 ‘막새’ 등 5점을 1986년에

<표 2. 김광추 교류 인물>

○제주지역인물 ○타지역인물



<圖 19> 제주의 서예가들

(좌로부터 홍정표, 문기선, 홍중언, 김광추, 현중화)



74)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50호, 2013, 36쪽.

기증하였다.⁷⁵⁾

1984년에는 추사 김정희의 적거지 복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가 열렸다. 허건, 김기창, 서세옥, 송영방, 변시지, 양인옥, 현중화, 김응현 등 한국미술계의 원로, 중진들의 호응으로 제주학생회관 전시실에서 100여 점이 전시되었다. 이로써 예총제주도지부(지부장 양창보)는 목표액 3,000만원을 확보하고, 제주도와 남제주군의 사업비를 더하여 기념관과 5채의 초가집이 대정읍 안성리 1661번지에 복원되었다.⁷⁶⁾

이상에서 볼 때 김광추가 도내외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도의 서예·문인화·전각·수석·분재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제주도에 소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이외의 작가들을 초빙하여 제주도에서의 전시를 주선하면서 김광추가 선구자적 입장에서 제주 문화예술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광추의 예술 교류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주로 전라도 지방으로 집중됨을 볼 수 있다. 이는 4·3으로 인한 광주로의 도피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라도와 제주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타 지역보다 접근이 용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의 교류 인물들과 김광추와의 직접적인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7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20년사』, 제주사람들, 2004, 34쪽·37쪽.

76)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하, 도서출판 보고사, 2011, 181~182쪽.

Ⅲ. 서예 작품과 후진 양성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서예계에서는 國展이 거의 유일한 서예활동의 무대로서 권위를 지녀왔다. 국전을 통해 書家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성급한 書學徒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고법의 충실한 연구에 의한 실력의 축적보다는 대체로 시류적인 서가의 서체에 치중하게 되는 풍조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서예단체의 활동과 각급 학교의 미술활동 등을 통해 서예 인구의 저변확대의 싹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의 서예활동의 양적 증가를 1965년에 열린 여러 개인전에서 볼 수 있는데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그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⁷⁷⁾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대외적으로 알려진 서예활동은 극히 미약했다. 1955년 일본에서 귀국한 현중화의 국전활동과 1965년 문기선 개인전(제주시 요안다방), 손재형의 영주연묵회 창립전 출품⁷⁸⁾ 등이 있었을 뿐 전국적인 흐름과는 그 차이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기에 김광추는 제주도 최초의 서예단체를 결성함으로써 제주 서단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김석윤에 의하면 제주신문사를 통해 제주도미술전람회가 탄생하는 데에도 김광추가 기여했다고 한다. 다음의 글은 김석윤의 증언 내용이다.

제주도미술전람회를 만든 게 아버지거든. 제주신문사 사장이 아버지보다 연세는 밑이신 집안어른이셨어. 그 분이 아버지와 다니면서 얘기하는 동안 그림에 눈을 뜨신 거야. 작품 수집을 했어. 그러던 사이에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제주도미술전람회를 시작하라고 권하셨어. 그래서 제주도미술전람회가 시작되었지. 첫 회 때 남농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시고, 서세옥 선생님이 두 번째에 오시고, 목우회 활동도 하시고 아버지 초상화 그려주신 양인옥 선생님이 심사위원 하시고 해서 제일 처음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만 가지고 제주도전을 했지.⁷⁹⁾

77) 任昌淳·李龜烈·李興雨 共著, 『韓國現代書藝史』, 通川文化社, 1981, 78~80쪽.

78) 任昌淳·李龜烈·李興雨 共著, 위의 책, 89~90쪽.

79)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禾北』 11호, 하나인쇄, 2014, 13쪽.

1975년 제주신문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제주미술의 중흥을 기하고 나아가서 民族文化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주도전을 개최하였다. 일반부(동양화·서양화·서예)와 학생부(회화·서예)로 나누어 개최하였는데 전 시회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에는 제주도전에 ‘청탄상’이 제정되어 동양화부에 다년간 시상해 오기도 했다.⁸⁰⁾

제 III장에서는 김광추의 작품 중 제호 작품과 서예 작품 그리고 서예·전각 지도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제주 서단에 끼친 영향과 당시 제주도에서 차지했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題號 作品

제주에서 김광추가 제호한 작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에 세워진 「海兵魂」 탑, 화북포구에 있는 「禾北浦始役時告由文」, 화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의 교명인 「濟州華僑小學校」,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 소재한 「殉國志士趙鳳鎬紀念碑」, 현 제주도청의 「定礎石」, 서양화 동호회 화맥동인의 「畫脈」, 이도 1동의 교량명 「三姓橋」, 제주MBC의 현판 「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오현고 교훈비 「學行一致」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海兵魂 塔⁸¹⁾ <圖 20>

1960년 김광추가 제호하여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중앙에 「海兵魂」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탑이 있다. 이 탑은 해병대원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전공을 추념하기 위하여 해병대 3·4기 제대 장병들이 주축이 되어 해병혼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병대 창설 11주년을 맞은 1960년 4월 15일 세워졌다.

북쪽 면에 해병혼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해병혼

80) 康榮浩, 「濟州美術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24쪽.

81) 2단의 받침대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삼각뿔대를 높게 만들고 그 맨 위에는 다시 삼각뿔 모양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는 삼다·삼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면적 400㎡(119평)에 기단 1.83m를 포함해 전체 탑 높이는 10m에 이른다.

의 휘호를 받았으나 1960년 3·15부정선거가 일어나자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김광추의 해서체로 바꾸게 되었다. 김광추는 해병훈의 글자 중 우변인 ‘鬼’ 위에 붙은 점을 빼지 않으면 죽은 혼이 된다고 해서 한 획이 적은 글씨로 썼다.⁸²⁾ 법첩에는 점 하나가 빠진 ‘鬼’ 자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김광추가 서예 학습과정에서 법첩을 통해 공부를 했다는 증거가 되다.

<圖 20> 海兵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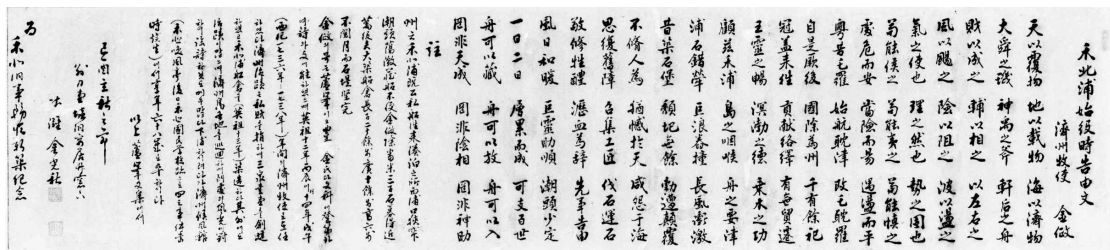


「해병훈」의 제작 과정에서 당시 제주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김광추가 제주도내에서 차지했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제주도내의 서예가 중 대통령의 글씨를 대체하고 글자의 자형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어 쓸 수 있었던 이가 김광추였던 것이다.

2) 禾北浦始役時告由文 <圖 21>

제주시 화북동의 화북포구 방파제 인접한 곳에 金倣⁸³⁾ 목사의 공적비 곁에 「禾北浦始役時告由文」이 세워져 있다.

<圖 21> 禾北浦始役時告由文



조선조 제주의 주요 관문이었던 화북포는 얇고 비좁아 배 출입이 불편하였다. 그래서 1735년(영조11) 김정 목사가 직접 부역을 독려해 길이 약 63m, 폭 6m, 높이 약 4m의 방죽을 쌓게 되었다. 이 비문은 당시 김정 목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의 각오와 염원을 담아 하늘에 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82) 좌동철, “‘무적해병’ 애국충정을 상징”, 제주일보, 2013년 6월 24일, 13면.

83) 金倣(1670~1737)은 영조11년(1735) 1월 제주목사 겸 호남방어사로 제수되어 그 해 4월에 도입하여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주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김정은 제주목사로 재임 중 글보다는 치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다. 저서에 『蘆峯文集』이 있다.

이 비문은 1969년에 김광추가 자신이 평소에 주로 쓰던 소필 행서로 유려하게 썼으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이다. 특히 행간을 넉넉히 주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章法을 보여주고 있어 그의 서사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화북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원문은 현재는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

3) 濟州華僑小學校 <圖 22>

김광추는 삼도2동 옛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의 「제주화교소학교」의 교명을 제호하였다. 글씨는 필세가 굳건하게 살아 骨氣가 넘치는 해서로 구양순을 닮고 있다. 이 교명은 당시 ‘아주반점’이라는 중식당을 경영하던 화교회장 范誓進과 김광추의 교분에 의해 쓰여지게 되었다.

제주화교소학교는 화교회에서 중화민국 54년(1965년) 7월 8일에 6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건립되었는데 점차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되었다. 현재는 화교인 慕秀芬에 의해 초등학생들에게 한자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실로 운영되고 있다.

김광추의 장남인 김석윤에 의하면 이 학교의 교명을 학교 건립 당시인 1965년에 김광추가 제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모수분이 처음 이 학교에 왔던 1978년에 현재의 학교명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증언⁸⁴⁾과 함께 김광추의 교명 제호 시기를 살펴보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殉國志士趙鳳鎬紀念碑 <圖 23>

1977년 김광추는 사라봉 모충사의 조봉호 지사 기념비를 해서로 썼다.

84) 화교 慕秀芬(61세)의 증언(2014년 11월 27일).

<圖 22>
濟州華僑
小學校



<圖 23>
殉國志士
趙鳳鎬 紀念碑



조봉호 지사는 1884년 한림읍 귀덕리에서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제주시내 성내교회에서 李基豊 목사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1912년에는 애월읍 금성리에 교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⁸⁵⁾

趙鳳鎬와 崔艷植 등은 1919년 5월 상해임시정부를 돕기 위해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여 짧은 시일 내에 회비를 모아 1만원을 송금하였다. 이 일로 인해 같은 해 7월 왜경에게 구속되어 대구 형무소에 수감 복역 중 1920년 4월 28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63년 3월 1일 건국 공로훈장을 유가족에게 내렸고 1977년 사라봉 기슭에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그의 기념비를 세웠다.⁸⁶⁾

<圖 24> 定礎

5) 定礎 <圖 24>

1978년 김광추는 제주시 연동의 현 제주도청 정초석의 「정초」를 단정한 해서로 썼다. 제주도내의 최고위급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청의 정초석을 썼다는 데에서 김광추 서예의 위상을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6) 畫脈 <圖 25>

김광추는 1978년 창립된 미술동호회인 '화맥동인'의 「화맥」을 행서로 제호하였다.



<圖 25> 畫脈

金元珉, 高英羽, 高在萬, 康榮浩, 金柄化 등 서양화가 5인으로 구성된 '화맥동인'은 1962년에 창립된 제주도내 최초의 학생그룹인 '橘同人'이 그 모태가 되었다.⁸⁷⁾

'글동인'은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미술부 간의 친목 교류를 목적으로 오현고등

85) 趙鳳鎬紀念碑의 略歷 참고.

86)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253~255쪽.

87) 康榮浩, 「濟州美術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26쪽.

학교 미술부가 주축이 되어 창립하게 된 단체이다. 1970년까지 계속된 이들의 활동 역시 제주미술이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였다.⁸⁸⁾

7) 三姓橋 <圖 26>

<圖 26> 三姓橋

김광추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교량인 삼성교를 행서체로 제호 하였다. 김석윤에 의하면 제호 시기는 1970년대 말이라고 한다. 현재의 교량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공사기간을 거쳐 사용해오고 있으며 제호 작품은 원래의 교량에서 이전해온 것이다.



오래전부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명소인 삼성혈과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사이의 교량 명칭을 김광추가 제호 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 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圖 27>

김광추는 1980년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의 현판을 해서체로 제호하였다. 남양문화방송은 제주도 최초의 민영TV방송국으로 1970년에 ‘남양방송’으로 개국했다. 1971년에 ‘남양문화방송’으로 社名을 변경하였고 1984년에 현재의 ‘제주문화방송’으로 바꾸었다.

1978년 남양문화방송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탐방해서 이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향토 예술인을 찾아’를 통해 향토문화를 진흥시키고 소외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때 1월1일 김광추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현중화(1월15일), 변시지(2월12일), 홍정표(4월2일), 서경보(5월14일), 문기선(6월4일), 양창보(10월29일), 김택화(11월26일), 서예가 김순겸(12월10일)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민의 문화정서를 자극하면서 향토 문화예술인을 통해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남양미술회관의 탄생을 촉진시켰다.⁸⁹⁾

88) 康榮浩, 앞의 논문, 17~18쪽.

89) http://www.jejumbc.com/company/30_history.asp(제2부 2장 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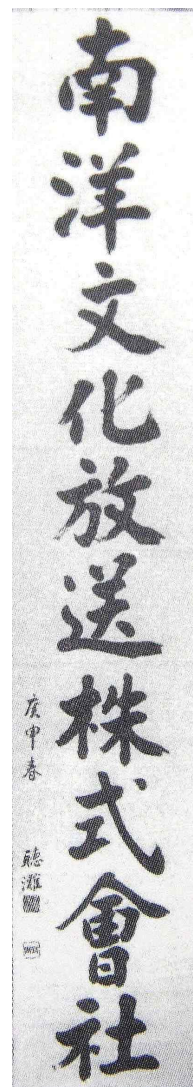
남양문화방송은 새 사옥으로 이전한 후 옛 임대사옥에 남양미술회관을 개관하여 미술 전시공간으로 운영했다. 1980년 9월 20일 개관한 남양미술회관은 제1전시실 60평과 제2전시실 30평으로 구분해서 전시 규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관기념 전시로는 제주도 작가 초대전을 열었는데 이 초대전에는 김광추, 현중화, 홍정표의 작품을 포함하여 서예 18점, 한국화 4점, 서양화 10점, 사진 11점, 조각·공예 각각 1점씩 출품됐다. 1981년에는 기획전으로 원로 작가 초대전을 열었는데 소암 현중화 서예전(2월19일), 서양화가 양인옥 초대전(2월28일), 宇城 邊時志 서양화 초대전(6월3일), 청사 안광석 서예전(12월11일) 등이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전시회를 열어 당시 규모를 갖춘 전시공간이 없던 제주지역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다 1982년 8월 11일 폐관하게 되었다.⁹⁰⁾

당시 제주도에는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았다. 대부분 다방이나 호텔 로비 등에서 전시를 했는데 남양미술회관이 등장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주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문화방송이 제주 예술인을 소개할 때 김광추를 우선 소개했고 방송국의 현판을 김광추가 썼다는 데에서 언론계에까지 자리한 김광추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김광추는 그러한 자신의 입지를 활용하여 남양미술회관에서의 전시를 제주도내외 작가들에게 주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남양미술회관 전시회 현황이다.⁹¹⁾

<圖 27>
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90) 제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삼십년사』, 제주문화방송삼십년사 편찬위원회, 1998, 111쪽.

91) http://www.jejumbc.com/company/30_history.asp(제2부 5장 8절)

<표 3. 남양미술회관 전시회 현황>

전 시 기 간	전 시 명	전 시 내 용	주 최
'80.9.20~9.26 제1,2전시실	남양미술회관 개관기념 제주도 작가 초대전	회화·조각·공예·서예·사진 작가 44명, 작품 45점	남양미술회관
'80.9.29~10.5 제1전시실	제2회 화맥전	화맥동인 서양화가 5명 작품 24점	화맥동인
'80.10.15~10.21 제1전시실	제주·목포·서귀포소목회 합동 입서전	소목회 서예전 작품 89점	소목회
'80.10.28~11.3 제1,2전시실	제18회 연묵전	영주연묵회 정기전 작품 62점	영주연묵회
'80.11.13~11.16 제1전시실	'80 현대 건축작가 작품전	대한 건축사협회 응모 입상작 작품 31점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80.11.29~12.5 제1전시실	제4회 소호 조석춘 동양화전	조석춘 개인전 작품 35점	
'80.12.18~12.22 제1전시실	雨丁 金峻台 동양화전	김준태 개인전 작품 38점	
'80.12.24~12.28 제1,2 전시실	제5회 제주대학졸업작품전	제주대미술교육과 졸업예정자 (13명)작품전 작품 42점	제주대학교
'81.1.18~1.24 제1전시실	제10회 觀點 미술동인전	서양화 추상계열 동호인전 작품 28점	관점 미술동인
'81.2.7~2.12 제1전시실	長田 河南鎬 작품전	하남호 서예작품전 작품수 28점	대명화랑
'81.2.19~2.25 제1,2 전시실	素菴 玄中和 서예 초대전	현중화 서예 초대전 작품 41점	남양미술회관
'81.2.28~3.6 제1전시실	梁寅玉 서양화 초대전	양인옥 유화초대전 작품 41점	남양미술회관
'81.12.12~12.18 제1전시실	청사 안광석 契刻書展	안광석 서예전	남양미술회관

9) 學行一致 <圖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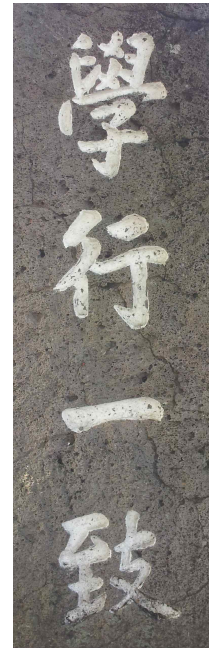
김광추는 일찍이 유배인들의 학풍을 이어받아 학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동네 학동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후학들의 한글해독과 기본적인 교육에 힘썼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개량서당, 화북사숙을 거쳐 근대적 학교의 시초인 화북사립보통학교로 이어지는 데에 기여하였다.⁹²⁾

1981년 9월 김광추는 오현고등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교훈인 ‘학행일치’를 단정하고 웅건한 해서체로 제호 하였는데 학교 교문 바로 안쪽 커다란 현무암에 새겨져 있다. 1970년 김광추는 五賢學院의 재단이사를 역임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남다른 열정을 지녔던 그는 1972년 9월 오현중·고등학교가 화북동

92) 吳成贊, 『제주의 마을』 9 - 禾北洞, 도서출판 반석, 2002, 60쪽.

으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학교 부지 마련에 분주히 활동하였다. 그런 연유로 인해 김광추의 장례식 과정에서 오현고등학교 악대가 장례행렬을 선도하였고 하관시에는 트럼펫으로 장송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1972년 11월 제주교육대학의 화북동 유치과정에서도 김광추의 역할이 있었다.⁹³⁾

<圖 28>
學行一致



김광추의 제호 글씨는 화북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시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정치·사회·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공공건축물에 김광추로부터 글씨를 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제주지역에서 유력한 서예가였다는 증거이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호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김광추의 서예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이 결부된 것이 바로 제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광추의 제호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김광추의 題號 作品>

구 분	규격 (세로×가로×폭, cm)	소재지	제작년도
海兵魂	1,830(기단높이) 8,170(탑 높이)	제주시 일도1동	1960
禾北浦始役時告由文	45.7×122.5×15	제주시 화북1동	1969
濟州華僑小學校	54×14	제주시 삼도2동	1970년대
殉國志士趙鳳鎬紀念碑		제주시 건입동	1977
定礎	40×50	제주시 연동	1978
畫脈	33×96	개인 소장	1978
三姓橋	65×25.5	제주시 이도1동	1970년대 말
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제주시 연동	1980
學行一致	235×265×175	제주시 화북1동	1981

2. 書藝 作品

김광추의 서예는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제주사회에서 그의 글씨를 선호했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미리 글씨를 써 두었다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

93)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禾北』 11호, 하나인쇄, 2014, 12쪽.

으면 바로 낙관을 하고 줄 정도였다고 한다. 김광추의 서예가 이렇듯 제주에서 선호되었다는 것은 그의 서예 작품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이런 김광추의 서예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그가 그림이나 사진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서예를 겸하여 배우고 연마한 시기인 학서기와 본격적으로 서예에 몰입하여 작품 활동을 한 활동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김광추는 1948년 광주에서 생활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여 사회가 혼란해지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귀국한 1957년에는 사진이나 서양화 대신 서예와 전각의 세계에 이미 몰입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1950년대의 제주 미술은 이중섭, 홍중명, 최영림, 김창렬, 구대일, 옥파일, 이대원 등 피란을 오게 된 화가들에 의해 이전의 폐쇄적인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제주도의 예술계는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다수의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혁의 과정 속에서 김광추가 마지막 渡日 후 귀국하는 1957년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學書期

김광추의 학서기를 살펴보면 고향인 화북마을에서 몇 명이 모여 동네 서당에서 천자문과 한학을 배우게 된 것이 서예 공부의 시작이었다. 일정한 法帖을 가지고 중국 古法을 임서한 것이 아니라 家學 習書를 통한 학습이었던 것이다.⁹⁴⁾

또한 어렸을 때부터 고구마, 나무, 돌 등에 재미삼아 글자를 새기면서 전각의 기초를 조금이나마 터득했다. 그렇게 시작된 전각은 1928년 도일하여 印章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김광추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서양화·사진·서예·전각 등에 고루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추는 1928년 제1차 渡日 후 쓰지모토 시유(1895~1957)를 사사하면서 정식적인 서예 입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1937년에 마쓰모토 호스이(1893~1971)⁹⁵⁾를 거쳐 1940년에 汗本史崑을 사사한 현중화보다 10여년 앞선 시기이다.

94) 김석운의 증언(2014년 4월 17일).

김광추와 현중화가 사사한 쓰지모토 시유는 일본 나라사범(奈良師範)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관서지방 서예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의 서풍은 그야말로 野趣이다. 그는 야인적인 기질이 강한 인물로 의도적으로 누추한 글씨를 구사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를 강조하였다. 이는 清代에 유행했던 北魏書에 대한 쓰지모토 시유의 독자적 해석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⁹⁵⁾

청대에 있어서 서예 복고열은 19세기 말의 일본 서예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 선구는 1880년 楊守敬(1839~1915)이 일본에 건너간 것이었다. 양수경은 支那公使 何如璋의 고문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지리학자이자 금석학자이기도 했으며 중국 고대의 碑版·法帖 1만 수천부를 일본으로 가져가 이를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는 日下部鳴鶴(1838~1922)·巖谷一六(1834~1905)·松田雪柯(1823~1881) 등이 그 영향을 받고 六朝書風을 高唱했다.⁹⁷⁾ 그리고

<표 5. 김광추·현중화의 사승관계>



쿠사카베 메이카쿠(日下部鳴鶴)를 곤도 셋찌꾸(近藤雪竹, 1863~1928)⁹⁸⁾가 이어받았으며 곤도 셋찌꾸를 쓰지모토 시유가 사사한 것이다.<표 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세기 말에 이르러 청나라의 정치가와 서예가들이 자주 내한하고 외교사행이 빈번해지면서 청말 대가들의 眞蹟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95) 마쓰모토 호스이는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일본 서단에 영향을 주었으며 雅趣어린 行草를 구사하였고 해서는 구양순의 서체를 변형시켜 독자적 서풍을 이루어 내었다(강경훈의 앞의 논문, 15쪽).

96) 강경훈, 앞의 논문, 16쪽.

97) 鄭台喜, 『日本書藝史』,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282쪽.

98) 近藤雪竹(1863~1928). 1879년 日下部鳴鶴의 門으로 들어가서 巖谷一六에게 도움을 받아 漢·魏·六朝를 연구하여 一家를 이루었다. 필세가 暢快하고 風骨이 峻拔하며 특히 隸書에서 묘를 얻었다. 辻本史邑·松本芳翠·川谷尚亨·佐分移山·名越霞溪 등이 따랐다(鄭台喜, 『日本書藝史』,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299쪽).

져 청대의 금석학과 고증학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말년 제자이면서 개화사상을 일찍이 받아들인 오경석(1831~1879)은 중국을 13차례 내왕하며 많은 서화작품 및 금석탁본을 들여와 국내에 영향을 주었다. 오경석의 소장품과 추사 금석학의 학맥은 그의 아들 오세창(1864~1953)으로 이어졌다.⁹⁹⁾ 이후 오세창은 안광석 등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안광석은 김광추와 교류하면서 전각의 불모지였던 제주도 전각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김광추가 전각에 관심이 깊었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 辻本史邑은 월간서도지 『書鑑』을 발행하여 올바른 서예 감상법을 제시하였고 1932년에 『書鑑習字教育の根本的革新』를 발행하면서 서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33년에는 『國民習字教範』楷·行·草 三卷을 출판하는 등 서예가이면서 교육자로서도 일본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대만에서 서법창작·서법교육·서법이론에서 3대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陳丁奇도 쓰지모토 시유의 『書鑑習字教育の根本的革新』을 참고하기도 했다.¹⁰¹⁾

<표 6. 쓰지모토 시유의 감상안 양성법>

감상안 양성 위한 필적 대조 ¹⁰⁰⁾	제1단계	① 동시대 혹은 동료 서예가들의 필적 ② 전 시대 혹은 기량이 앞선 서예가들의 필적 ③ 지역 환경에서 주어지는 감상의 기회
	제2단계	① 여러 서예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감상 ② 비판(원탁본과 사진) ③ 법첩(원탁본과 사진) ④ 다양한 명적의 복제품(사진)

김광추는 쓰지모토 시유를 통해 서예뿐만 아니라 서예 감상법을 통한 서예의 교육의 방법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표 6>에서 쓰지모토 시유는 ‘감상안 양성의 대조필적’에서 제1단계로 동료와 선배 및 여러 작가의 필적을 감상하고 그 지방에서 접할 수 있는 감상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김광추가 평소 강조하던 내용인데 현 제주소목회장인 金淳宅이 김광추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9) 김미라 외,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275쪽.

100) 辻本史邑, 「遺稿」, 『辻本史邑展圖冊』, 日本書芸院·産経新聞社 1993, 173쪽 참조.

101) 李郁周, 「陳丁奇書學淵源初探」, 陳丁奇百歲紀念「二十世紀台灣書法發展回顧」學術研討會, 2010, 12쪽.

내가 현중화 선생과 비교하여 나설 형편은 아니나 굳이 말한다면, 잘하든 못하든 남의 한 바(作品)를 널리 그리고 많이 보아야 한다. 많이 보는 것이 즉 배우는 것이다. 보는 걸 익숙히 함이 얻고 배움이라네.¹⁰²⁾

김광추와 쓰지모토 시유에 대하여 현중화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청탄선생의 서예는 내 스승이기도 한 쓰지모토 시유우(汁本史邑) 선생께서 매주 한 번씩 대판에 가서 지도할 때에 그 선생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은 魏·晉의 비문과 2왕(王羲之, 王獻之)의 행서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김광추 선생의 글씨에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서풍으로 생각됩니다. <중략>
그러나, 재주가 좋아 비문을 많이 썼고 누구라도 글씨를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써 주었습니다. 서예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¹⁰³⁾

비록 김광추가 쓰지모토 시유를 사사한 기간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 김광추의 글씨에서 스승의 서풍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중화의 증언도 있지만 이른 시기에 체계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데에서 그의 서예에 대한 열정과 서예술의 성장 기반을 찾을 수 있다.¹⁰⁴⁾

귀국 후의 김광추와 현중화는 일본에서 귀국 후 쓰지모토 시유를 통해 배운 내용을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주 서예계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 현중화가 辻本史邑의 <표 6>의 '감상안 양성의 대조필적'에서 제1단계와 제2단계를 두루 섭렵하여 체계적으로 후학들을 지도한 것과는 달리 김광추는 제1단계를 중심으로 올바른 서예를 위한 감상법을 통한 서예 교육과 함께 제주 전각계에서 그 맥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추의 서예 작품에서는 비문이나 법첩에 의한 글씨를 찾아 보기 어렵다. 단지 구양순의 서풍을 담아낸 <圖 39>의 해서 작품과 漢隸의 기운이 흐르는 <圖 42>의 예서작품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비와 첩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김광추가 서화·전각·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두루 학습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로도 보인다.

102) 濟州素墨會, 『創立十週年 記念會誌 素墨』, 景信印刷, 1983, 55쪽.

103) 오문복, 「나는 이 선각자를 존경합니다」, 『월간 관광제주』 제23호, 1986, 21쪽.

104) 현중화는 1924년 渡日 후 1937년에 마쓰모토 호스이를, 1940년에 쓰지모토 시유를 사사했다.

반면 현중화는 일본에서 마쓰모토 호스이와 쓰지모토 시유를 사사하면서 서예에 집중하여 학습하였다. 비문과 법첩을 철저히 임서를 하였고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임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古典에 충실하면서도 과감하고 자유로운 운필을 통해 예술적 경지에서 서예를 추구했던 것이다. 결국 현중화는 비와 첩의 혼용을 통해 독자적 서체를 완성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각지에 소묵회를 창립하여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우리나라 서예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김광추의 학서 과정에서의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김광추가 40세 되는 해인 1944년에 예서로 쓴 화북입향조 「嘉善大夫金海金公就鼎之墓」와 해서로 쓴 고조부 「學生金海金公泰寶之墓」의 묘비를 통해 학서기 시절에 이미 서예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활동기

1957년 일본에서 귀국한 김광추는 1963년에 담담회, 1965년에는 영주연묵회를 조직하면서 제주 서단에서 본격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소묵회 창립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다. 1973년 제주소묵회가 창립된 후에는 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소묵회원들이 서실에서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함께 하면서 회원들에게 지도와 격려를 잊지 않았다.

이 시기의 김광추는 행초서 위주의 작품을 많이 썼다. 그는 비문이나 법첩에 의존하지 않고 家學 習書 경향의 글씨를 썼다. 따라서 그의 행초서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書寫的 운필에서 느낄 수 있는 온화하고 유려한 서풍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結構나 章法에 있어서 潤渴·太細·大小·曲直 등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예술적인 감각을 보이기도 한다. 대자서 작품의 결구에서는 정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평소 소탈했던 김광추는 지인들의 작품 청탁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문구를 반복해서 습자한 뒤에 잘 씌어진 작품을 골라 낙관하여 주었다. 작품에 대한 사례는 전혀 받지 않기로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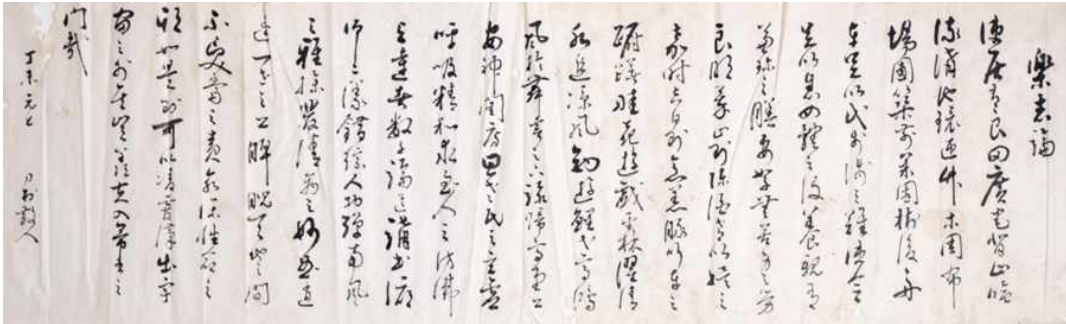
현재 조풍각에는 낙관이 없는 작품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김광추가 습자했던 것들은 아니다.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미리 써 둔 것이다. 후에 지

인들이 작품을 선택하면 그 때 작품에 낙관하여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¹⁰⁵⁾

또한 남양문화방송국에서나 지인들이 김광추에게 초대전을 제의하면 주저 않고 사양하는 겸손한 모습도 자주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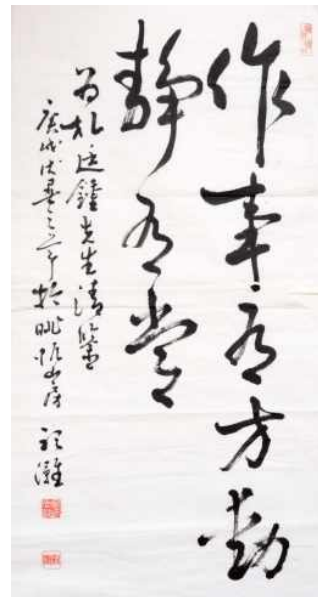
다음으로 조풍각에 소장되어 있는 김광추의 미공개 작품 중 記年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圖 29> 「樂志論」



1967년의 작품 「樂志論」은 평소 小筆에 능했던 김광추의 소필 행초서로 쓴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넓은 行間을 유지하면서도 결구나 장법에서 潤渴·太細·大小·曲直 등에서 千變萬化의 위용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그가 평소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고, 筆勢 또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내용 모두가 조화롭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에 김광추의 행초서는 이미 완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圖 29>

<圖 30> 「作事有方」



1970년의 작품 「作事有方」에서는 기운생동의 필치와 예술적인 감각으로 장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圖 30>

1971년의 작품 「漁父辭」에서는 소필 초서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1967년의 「낙지론」과 비교했을 때 直보다 曲이 많아 더욱 완숙미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낙지론」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휘호하였다면 「어부사」에서는 배가 가는대로 물결치는 대로 筆脈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圖 31>

105) 김석윤의 증언(2014년 4월 17일).

<圖 31> 「漁父辭」



1973년의 중필 행초서 「李忠武公 詩」에서는 전보다 힘찬 필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제주방어사에서 근무하였던 이정선 장군에게 주기 위해 제작한 작품으로 김광추의 폭넓은 인맥을 짐작하게 한다. <圖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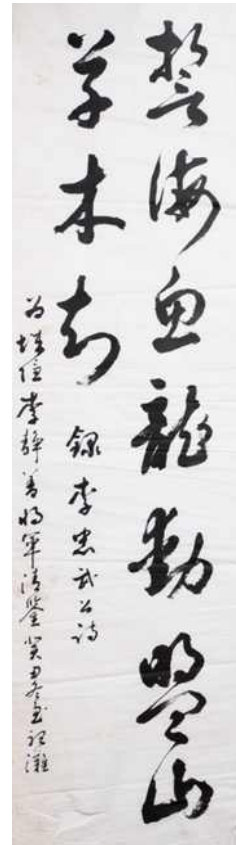
1974년의 대자서의 작품 「與天無極」에서도 힘찬 필력과 함께 비백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圖 33>

1975년의 작품 「公直無私」에서는 대자서이면서도 정확이 분산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결구가 돋보인다. <圖 34>

<圖 33> 「與天無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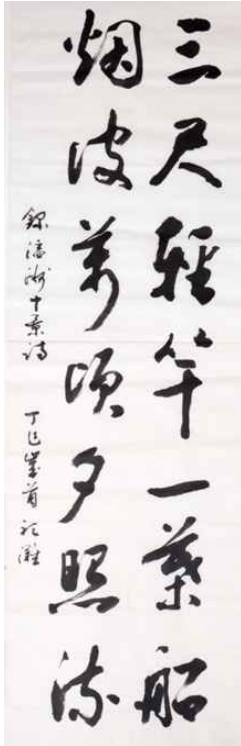
<圖 34> 「公直無私」



1977년의 작품 「瀛洲十景」은 전체 10폭 중 마지막 한 폭이다. 칠언시의 병풍서로 行間과 字間을 맞춰 흐트러짐 없이 안정감과 필력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圖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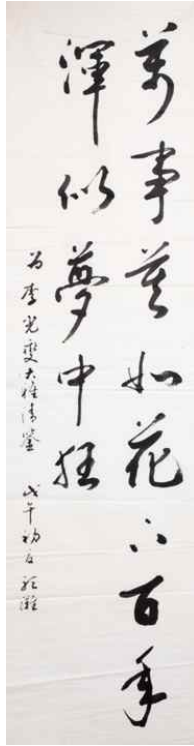
<圖 35>

「瀛洲十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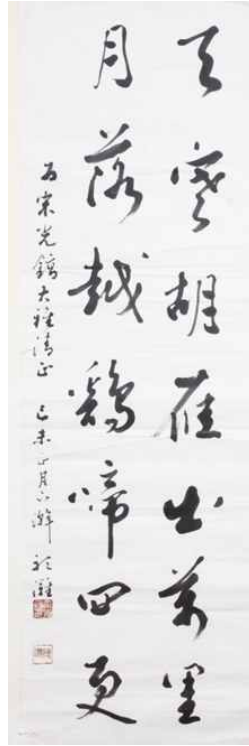
<圖 36>

「萬事莫如」



<圖 37>

「天寒·月落」



<圖 38>

「明心寶鑑 句」



1978년에 제작된 「萬事莫如」는 김광추 행초서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본문 내용 중 ‘下’ 字와 ‘百’ 字 사이에 글자 하나[醉]가 빠져 있지만 김광추의 유려한 행초서의 전형성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서귀포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던 李光燮을 위해 쓴 작품이다. <圖 36>

1979년의 「天寒·月落」 작품 역시 김광추 행초의 전형성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특히 획수가 적은 ‘天’ 字와 ‘出’ 字에서 완만한 운필을 통해 먹색의 농도를 질게조절하면서 단조로움을 피했다. 이 작품은 충북 제천 출신인 宋光鎬를 위해 제작하였다. 송광호는 제주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정보과장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다. 제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교류를 했던 김광추의 인맥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圖 37>

「明心寶鑑 句」 작품은 김광추가 작고하기 1년 전인 1982년의 작품이다. 단아한 행초서로 문장 중간에 먹의 농담을 활용하면서 제작된 작품이다. 내용 중 ‘白玉’, ‘君子’, ‘松柏’ 등의 어휘 등에서 김광추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圖 38>

앞에서 현증화가 회고하였듯이 김광추는 비문 제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족은 물론 이웃들을 위해서도 비문을 많이 썼다.

<표 7. 김광추가 쓴[書] 묘비 일람>

製作年度	墓碑名	規格 (길이×너비×폭, cm)	所在地
1944	學生金海金公泰寶之墓	115×41.5×19.5	제주시 화북동
1944	嘉善大夫金海金公就鼎之墓	115×41.2×18.5	제주시 화북동
1944	通政大夫金海金公載淑之墓	116×41.8×20.3	제주시 화북동
1959	秀才金海金時完之墓	66.5×29.5×14	제주시 화북동
1959	秀才金海金光禧 光弼之墓	78.2×33.2×15.3	제주시 화북동
1963	金海金公宗福之墓	99×42×21cm	제주시 용강동
1963	孺人慶州金氏之墓	101×42×18.5cm	제주시 용강동
1963	學生金海金公載雲之墓	98×40×20cm	제주시 용강동
1963	孺人天安全氏之墓	97×40.8×19cm	제주시 용강동
1972	從仕郎南坡居士金海金公時澄 配宜人全州李氏附左之墓	130.5×44.5×15.8	제주시 영평동
1972	都軒居士金海金公時秉 配孺人晉州姜氏附 左之墓(前面大字;玄中和書)	130×44.5×18.5	제주시 영평동
1974	金海金公用哲追慕碑	116×40.6×15.2	제주시 영평동

<圖 39> 「嘉善大夫金海金公就鼎之墓」

그의 비문은 해서체에 국한되었던 글씨 이외에도 예서체의 글씨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학서기 시절인 1944년에 쓴 金就鼎 묘비는 圓筆의 예서를 長方形으로 쓴 것이다. <圖 39>

漢나라 예서의 필획을 통해 김광추가 행초서 중심의 서예뿐만 아니라 漢隸 서예에도 조예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상으로 김광추의 서예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작품들을 통해 김광추의 서예는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김광추가 진정한 서예가로서의 실력과 면모를 갖추고 제주 서단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현존하는 작품의 대부분 행초서 위주로 남아 있어 碑文을 제외하면 예서·전서 등의 작품이 드문 점은 김광추 서예의 한 특징이다. 즉 김광추는 행초서 위주의 서예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3. 書藝·篆刻 指導

1) 서예 지도

1963년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인 淡淡會가 등장하게 되었다. 문기선의 증언에 의하면, ‘담담회’라는 명칭은 ‘심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김광추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사를 논하던 모임이었던 것이다.

당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김광추, 현중화, 양중해, 문기선, 이완규 등에 의해 결성되었는데 후에 이들이 제주도 최초의 서예단체인 영주연묵회의 창립을 주도하면서 제주 서단의 형성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65년 6월 영주연묵회 발기를 위하여 김광추, 홍정표, 현중화, 김성택, 강창수에게 통문하고 백록다실에서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7월 25일에 신성여고 강당에서 영주연묵회가 창립이 되었다. 초대 회장에 홍정표, 부회장에 현중화, 총무에 문기선, 회원으로 金光秋, 金性澤, 金泰俊, 金玟奎, 李範九, 康昌洙, 宋元和, 邊榮卓, 金鐸林, 金奉玉, 金升協, 玄義久, 金成春, 金時顯, 金瑄玉, 梁重海, 金順謙, 金奉洙, 姜柄龍, 玄炳璨, 姜昌浩, 玄玟植 등이다.¹⁰⁶⁾

영주연묵회는 창립전에 부처 서예를 통한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예술의 창조에 일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같은 해 11월 제주시 요안다방에서 창립전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서귀포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창립전에는 김봉옥, 김순겸, 문기선, 홍정표, 현창훈, 김호철, 김승협, 현진숙 등 8명이 27점을 출품했다.

106) 康榮浩, 『濟州美術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 1985, 31쪽.

그리고 추사체에 일가견이 있었다는 고순흙의 작품이 내걸렸고 당시 국내 최고의 서예가로 꼽히던 손재형도 작품을 들고 제주를 찾았다. 2003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서 여성회원을 영입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 서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¹⁰⁷⁾

다음은 영주연묵회 창립 당시 총무를 맡았던 문기선이 회고하는 내용이다.

백록다방에서 영주연묵회를 결성하고 당시 귀성중이던 竹岩 高順欽 선생을 모시고 신성여고(현 중앙성당) 교실에서 서예특강(참석인원 70여명)을 갖기도 하고 창립전은 시내 요안다방에서 개장하였는데 중앙 원로 서예가이신 素筌 孫在馨 선생이 축하차 직접 내도하고 「山海崇深」 횡액을 찬조 출품하고 손재형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필사적으로 입수하여 환국한 국보 「세한도」에 대한 특강(참석인원 100여명)은 이 고장의 근대 미술사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다.¹⁰⁸⁾

2014년 6월 1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57회 영주연묵전이 개최 되었는데 이 사장인 현병찬의 인사말에서 김광추, 홍정표, 현중화, 문기선, 김태준, 양중해, 김순겸 등을 회고하고 있다.

지금부터 49년 전 제주에 거주하면서 묵향을 즐겨하시던 홍정표 선생님, 김광추 선생님, 현중화 선생님, 문기선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1965년 7월 25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영주연묵회라는 서예 단체를 창립하고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꾸준히 회원전을 개최하며 회원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의 서예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초대 회장님이신 홍정표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광추 회장님, 김태준 회장님, 양중해 회장님, 김순겸 회장님 등 전 회장님들의 열성어린 땀이 배어있는 영주연묵회는 제주의 서예사를 대변해주는 듯합니다.¹⁰⁹⁾

김광추는 1973년 제주소묵회 창립의 경우에도 현중화를 적극 독려하여 소묵회의 창립을 도왔고 소묵회의 고문으로서 활동을 계속 했다.

영주연묵회가 이미 서예가로서 이름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단체라면

107) 제주시50년사편찬위원회, 『濟州市五十年史』 下卷, 하나디자인, 2005, 305쪽.

108) 문기선, 「제주 작고 예술인의 작품세계」, 『제주예술』 제4집, 일신옵셋인쇄사, 1991, 33쪽.

109) 영주연묵회, 「第57回 瀛洲研墨會」, 제주출판인쇄공사, 2014, 5쪽.

소목회는 현중화를 사사하는 일반인들의 모임이다. 문기선이 소목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성두,이제민, 송근수, 장용직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73년 5월 6일 창립총회에서 이성두가 회장으로 문기선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창립 이듬해인 1974년 3월 제주시 정다방에서 첫 전시를 개최했다. 소목회는 서예 지망생이 전문 서예가의 가르침을 받는 효시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초기 제주 서단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김광추와 현중화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전각 지도

전각은 금이나 상아, 또는 옥이나 나무 등과 같이 굳고 단단하나 재질을 지닌 물체에 어떤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징표를 글이나 그림으로 새겨 넣는 작업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예술 장르의 하나인 동시에 동양 특유의 예술 정신이 살아 숨쉬는 장르이기도 하다. 어떤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방의 행위이자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그 역사는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¹¹⁰⁾

전각이 서화의 한 영역 속에 포함된 것은 명나라 때이다. 그리고 오늘날 작품에 사용하는 낙관용 전각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명나라 때 유명한 서화가였던 文徵明과 그의 아들 文彭은 古印을 수집, 연구하면서 전각을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특히 문팽은 전각에 대한 학술적인 논거를 처음으로 확립하였고 전각을 하나의 예술적 장르로 등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¹¹¹⁾

우리나라 전각의 경우 추사 김정희 이후 香壽 丁學教(1832~1914), 海觀 劉漢翼(1844~1923), 靑雲 姜璉熙(1851~1919), 葦滄 吳世昌(1864~1953), 惺齋 金台錫(1872~1952) 등의 근대 전각가들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들의 제자 세대로서 晴江 金永基(1911~2007), 晴斯 安光碩(1917~2004), 鐵農 李基雨(1921~1993), 裋亭 鄭文卿(1922~20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¹¹²⁾

110) 이재인, 『한국의 인장문화』, 도서출판 창작세계, 2012, 7쪽.

111) 이재인, 위의 책, 15쪽.

112) 페터 회셀레, 『한국의 봉함인』, 도서출판 다운샘, 2005, 55~59쪽.

제주 전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추사 김정희의 유배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여 蘇齋 金九五가 승계하였는데 그의 아들 愚齋가 정통을 이었다. 그리고 우제의 아들 研山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으며 김의남을 연농 洪宗시가 이었고 그 뒤를 朴判事(성명미상)가 전승했다. 그러나 그 맥은 일제 해방과 동시에 완전히 끊기다가 김광추의 전각 활동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¹¹³⁾

김광추는 일본 시절에 학비 조달을 위해 印章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 배운 실력이 사방 한 치(3cm)의 돌에 반야심경 280자를 음각으로 새겨 넣을 정도 섬세하였다. 김광추의 제자인 전성호는 스승의 印面처리 방법, 편도사용 등을 고려해 볼 때 明末 清初로 이어지는 시대의 각풍에 가까운 것이라 한다.¹¹⁴⁾

전성호에 의하면 광복 후 제주도에는 전각 예술이 거의 없었는데 김광추가 유일하게 전각의 씨를 뿌리고 장려했다고 한다. 김광추는 전각을 일반 도장쯤으로 여기던 당시의 인식을 바꾸고 전각첩과 인보, 실제 작품을 통해 전각이 분명한 예술 분야임을 확인시키면서 후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교유 인물인 안광석을 통해서도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면서 단절되었던 제주 전각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김광추 전각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전성호·문용길·김시남·이영진·고원중·전성호 등이 있다.¹¹⁵⁾

김광추는 일본에서 배운 전각 실력을 토대로 조풍각을 출입하는 문인묵객들과 영주연묵회원, 소묵회원들에게 전각인을 직접 새겨 주기도 했다. 현중화도 소묵회원의 인장 대부분이 김광추의 손에서 나왔으며 현중화 자신도 김광추가 제작한 것을 오래도록 써 왔다고 회고하고 있다.¹¹⁶⁾

김광추의 전각 작품인 <圖 40>는 조풍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다. 평소 화훼와 분재를 좋아했던 김광추가 살았던 조풍각에서는 일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壹年無日不看華).

113) 梁鎭健, 『禾北의 教學文化 - 유배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214쪽.

114) 전성호, 『청탄선생과 제주 전각』, 『월간 관광제주』 제23호, 1986, 43~44쪽.

115) 전성호, 위의 책, 45쪽.

116) 오문복, 위의 책, 22쪽.

<圖 40> 「壹年無日不看華」



<圖 41> 고재만, 「耽羅의 脈」



<圖 41>은 앞에서 언급했던 ‘화맥동인’의 회원이었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고재만의 1978년 유화작품 「耽羅의 脈」으로 현재 서귀포시내 기당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같은 해 1978년 김광추는 ‘화맥’을 제호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재만이 인상주의 화풍으로 전각에 몰두하고 있는 김광추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다. 또한 작품 제목에서도 제주 전각의 맥을 이은 김광추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IV. 結論

이상에서 김광추의 생애와 교유, 서예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제주서예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추는 넉넉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그 곳에서 고희동, 김복진, 안석주 등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키워나갔다. 그러한 영향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어 서예는 물론 서양화·전각·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작업을 시도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일본 유학을 통한 학습의 결과를 토대로 서예는 물론 서양화, 사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주 근대미술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후학들의 한글해독과 기본적인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 재단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오현중·고등학교와 제주교육대학이 현재의 교정으로 이설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등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제주 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960년 도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던 김광추는 제주시 일도1동에 소재한 해병훈탑의 「海兵魂」을 비롯하여 「禾北浦始役時告由文」·「濟州華僑小學校」·「殉國志士趙鳳鎬紀念碑」·「定礎石」·「畫脈」·「三姓橋」·「南洋文化放送株式會社」 등을題號하였다. 관공서·학교·방송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제호를 한 것이다. 이는 당시 김광추가 서예가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제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서예가이자 교육자였던 쓰지모토 시유를 사사하면서 체계적인 서예 입문 과정을 거쳤다. 김광추는 쓰지모토 시유에게서 서예와 함께 서예에 대한 감상안 양성법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서예를 집중적으로 지도한 현중화와는 달리 제주도의 서예가들에게 전각과 함께 서예 감상법을 지도하면서 제주 서단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일본에서 귀국한 한라산 이남의 현중화 등과 교유를 하게 되면서 담담회

를 모태로 하는 영주연목회를 창립하여 제주 서예의 형성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현중화에게 서예 지도를 적극 권유하면서 제주소목회의 창립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였다. 후에 소목회는 서귀포·광주·목포·대구·마산 등지로 파생되어 국내 각 지역의 소목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광추와 현중화가 근현대 제주서예의 형성과 정착에 기여하게 되었고 ‘산남의 素菴, 산북의 聽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김광추는 전각 부문에 있어서도 제주도내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해방 후 전각의 맥이 단절되었던 제주 전각계에 그 맥을 이었던 것이다. 또한 안광석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각작품을 소개하고 제주의 전각가들이 안광석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제주 전각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주 서예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김광추의 역할은 제주도내외의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제주도내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서예·사진·서양화·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홍정표·현중화·양인옥·박태준·문기선·오성찬 등으로 이들은 제주도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기여하였고 국내에 제주 문화예술의 전파를 위해 힘썼다.

4·3시기 이후 김광추는 제주도 이외 지역의 인물들과도 많은 교류를 가졌다. 허백련·허건·유치환·송성용·서정주·안광석·천경자·서세옥·고은 등으로 이들 역시 서화가·시인·서양화가·전각가로서 전국을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작가들이다. 이들 중 허백련과 허건의 경우에는 1948년 4·3시기 이전에 이미 교류를 시작했던 인물들이다. 김광추는 일제강점기에도 친척이 살았던 광주와 목포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김광추가 4·3 당시에 광주로 도피하여 많은 인물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도 허백련과 허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김광추의 교류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김광추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작가들의 제주도 전시를 주선하였고 제주도민들이 전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타 지역의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한 김광추의 역할을 통해 제

주도 전시행사는 활기를 띠었으며 제주 서예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김광추와의 교유 인물 중 허건, 송성용, 안광석, 서세옥, 양인옥, 홍정표, 현중화, 오성찬 등은 교유 과정에서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하거나 추사 김정희 적거지 복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에 작품을 쾌척하기도 하면서 제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고에서는 제주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김광추의 위상을 파악하고 제주 서단의 대표로서 제주 서예를 개척하고 기틀을 다진 인물로서의 김광추를 최초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활동과 제주도 내외 인물들과의 교유 흔적 및 작품 세계에 대한 조명은 아직 미흡하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다보니 직면한 문제였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자료집 및 단행본>

-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깃발, 나부끼는 그리움』, (주)교보문고, 2008.
- 고 은, 『바람의 사상』, 한길사, 2012.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한국문화사 37, 경인문화사, 2011.
- 김광옥, 『韓國書藝學史』,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9.
- 金基東, 『篆刻의 理論과 技法』, 梨花文化出版社, 1999.
-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하, 보고서, 2011.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 김상엽, 『南農許榘藝道六十五年』, 남농미술문화재단, 2010.
- 김상엽, 『소치 허련』, 학연문화사, 2002.
- 김영호,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양인옥·변시지)』, 제주도립미술관, 2014.
- 김유정·전은자,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작고작가)』, 제주도립미술관, 2012.
- 김 정, 『蘆峰文集』, 제주문화원, 2001.
- 김정환, 『필묵의 황홀경』,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김중헌, 『秋史를 넘어』,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7.
- 金榮洽,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도서출판 조원사, 2000.
- 김태정, 『전각』, 대원사, 1990.
- 김학동, 『서정주 評傳』, 새문사, 2011.
- 朴鎭柱, 『韓國의 繪畫 毅齋 許百鍊 畫集』, 藝耕産業社, 1984.
- 박찬식, 『제주민중항쟁의 역사』,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 宋河璇, 『未堂 徐廷柱 研究』, 鮮一文化社, 1991.
- 심세중, 『毅齋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디자인하우스, 2001.
- 예총제주도지회, 『제주예술』 제4집, 일신옵셋인쇄사, 1991.
- 오성찬, 『20세기 제주사람들』, 도서출판 반석, 2000.
- 吳成贊, 『제주의 마을』 9 - 화북동, 도서출판 반석, 2002.

- 오성찬, 『오성찬문학선집』 11권 작가·작품론/앨범/연보, 푸른사상사, 2006.
- 오세영, 『유치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 오현고등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五賢高 50年史(1951~2001)』, 제주콤, 2002.
- 유홍준, 『완당평전』 1·2·3, 학고재, 2002.
- 李龜烈 외, 『韓國近代繪畫選集 韓國畫』 7 - 許百鍊/許楛, 金星出版社, 1990.
- 李龜烈 외, 『韓國近代繪畫選集 韓國畫』 11 - 張遇聖/千鏡子, 金星出版社, 1990.
- 이동민, 『한국 근·현대 서예사』, 수필과 비평사, 2011.
- 이재인, 『한국의 인장문화』, 도서출판 창작세계, 2012.
- 全南日報社, 『毅齋 許百鍊 作品과 生涯』, 1977.
- 정중헌, 『천경자 평전 - 천경자의 환상여행』, 도서출판 나무와 숲, 2006.
- 鄭台喜, 『日本書藝史』,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 鄭台喜, 『中國書藝의 理解』,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를 품은 옛 그림과 글씨』, 대신인쇄, 2013.
- 제주도, 『도제50년 제주실록』, 나우인쇄출판사, 1997.
- 제주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도서출판 각, 2009
-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1979.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20년사』, 제주사람들, 2004.
- 제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삼십년사』, 제주문화방송삼십년사편찬위원회, 1998.
- 제주소묵회濟州素墨會, 『素墨』, 景信印刷, 1983.
- 제주시50년사편찬위원회, 『濟州市五十年史』 下卷, 하나디자인, 2005.
- 제주일보사, 『濟州日報 60年史』, 벽호문화사, 200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 60년사』 1, 대영인쇄사, 2008.
- 최 열, 『한국근대미술비평사』, 열화당, 2001.
- 祝敏申, 『書法大觀』, 梨花文化出版社, 1997.
- 페터 회셀레, 『한국의 봉함인』, 도서출판 다운샘, 2005.
-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제주미술인작품집』, 파피루스, 2006.

<논문>

- 姜京勳, 『素菴 玄中和의 書藝術 世界 研究』, 圓光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 康榮浩, 「濟州美術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解放後 繪畫를 中心으로-」, 朝鮮大學校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김상엽, 「小癡 許鍊(1808~1893)의 生涯와 繪畫活動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
位論文. 2002.
- 金淳官, 「濟州近代美術의 形成 背景 考察 : 해방후~1950년대까지 西洋畫를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1.
- 김은영, 「毅齋 許百鍊과 鍊眞會의 南宗畫 復興運動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현자,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柳鳳子, 「素菴 玄中和의 書藝術 研究」, 湖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 夫允子, 「素菴 玄中和의 書藝術 造形性 研究 - 行草書를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2013.
- 梁鎮健, 「禾北의 教學文化 - 유배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
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이동원, 「경암 변영인의 생애와 학서 연원」, 『忠北學』 제11집, 충북학연구소, 2009, 12.
- 李星培, 「고려말 李岳의 書藝와 송설체」, 『湖西史學』 第49輯, 湖西史學會, 2008, 4.
- 李完雨, 「安平大君 李瑢의 文藝活動과 書藝」, 『美術史學研究』, 第246·247號, 한국미술
사학회, 2005, 9.
- 李完雨, 「員嶠 李匡師의 書藝」, 『美術史學研究』 제190·191호, 한국미술사학회, 1991.
- 李瑢薰, 「濟州 書藝 形成의 史的 研究」, 水原大學校 美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2.
- 정윤희, 「서세옥의 작품으로 고찰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담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4.
- 玄有桓, 「素菴 玄中和 書藝觀 研究」, 京畿大學校 美術·디자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2.

<기타 간행물>

- 간송미술문화재단, 『澗松文華 진경산수화』, 2014.
- 金洛駿, 『徐世玉 - 韓國現代美術代表作家100人選集』 권10, 金星出版社, 1975.

김종우, 『CHUN, KYUNG JA』, 세종문고, 1995.

老田 玄義久, 『老田 玄義久 印存』, (주)이화문화출판사, 2000.

대림화랑, 『朝鮮時代 小痴 許鍊展』, 1986.

“무적해병’ 애국충정을 상징”, 제주일보, 2013년 6월 24일.

서귀포시, 『남농 허건 - 소나무야 소나무야』, 신우문화인쇄, 2014.

서귀포시·예술의 전당, 『소암의 삶과 예술① 달아달아』, 2008.

素菴記念館, 『南農 許榘, 소나무야 소나무야』, 2014.

“安光碩씨 契刻書展”, 제주신문, 1981년 12월 14일.

瀛洲研墨會, 『第57回 瀛洲研墨展』, 2014.

예술의 전당, 『먹고 잠자고 쓰고』, 2007.

월간관광제주사, 『월간 관광제주』 제23호·24호, 1986.

日本書芸院·産経新聞社, 『辻本史邑展圖冊』, 株式會社 大塚巧藝社, 1993.

정연학, 「보도자료~국내최초 문화유산 사후기증」,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2012.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 『禾北』 11호, 하나인쇄, 2014.

http://www.jejumbc.com/company/30_history.asp(제2부 2장·5장).

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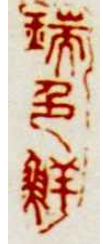


1. 청탄 김광추 年譜

- 本貫 : 金海
- 雅號 : 聽灘
- 堂號 : 潮風閣 · 潮風閣 主人
- 1905(1세) 9월 21일(음) 부친 金海 金時秉과 晋州姜氏 사이에서 濟州市 化북동에서 출생, 백부(時溼)로부터 한학을 수학하고 화북소학교가 개교하자 신학문을 수학.
- 1917(13세) 禾北尋常小學校 졸업
- 1920(16세) 康四正과 결혼
- 1923(19세) 金海金氏 春燮과 재혼, 濟州公立普通學校(제주북초등학교) 졸업
培材高等普通學校 입학(高義東, 安碩柱, 金福鎭의 지도)
- 1928(24세) 培材高等普通學校 중퇴후 渡日(대관에서 부친사업에 관여)
- 1932(28세) 귀국. 禾北尋常小學校에서 교편생활
- 1933(29세) 渡日
- 1937(33세) 귀국. 분재 · 원예 · 회화 · 사진 등 작업, 초대 의용소방대장 · 區長(里長) 역임
- 1942(38세) 『아사히 카메라』지 주최 사진 공모전에서 「나루터」 입선
- 1945(41세) 제주신문 창간에 참여
- 1948(44세) 4·3 발발로 광주로 피신하여 광주예술계의 毅齋 許百鍊과 南農 許槌, 木齋 許行冕, 南龍 朴容九, 淑堂 襄貞禮, 千鏡子 등과 교류
- 1950(46세) 한국전쟁발발하자 귀향을 포기하고 渡日
- 1952(48세) 일본 오사카에서 濟州高氏 乙生과 결혼
- 1957(53세) 귀국. 고향에서 원예작물(파인애플) 시험재배와 화훼와 분재 생활에 몰입
- 1960(56세) 제주도의회의원 당선, 이후 제주시정자문위원, 공화당 도당 당무위원장 등 역임

- 1963(59세) 서예동호회 淡淡會 결성
- 1965(61세) 瀛洲研墨會 창립회원, 이후 10년간(1974~1983) 회장 역임
- 1973(69세) 소묵회 · 영주수석회 · 제주한란보호회 ·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역임
- 1975(71세) 제주도미술전람회 산파 역할
- 1977(73세) 제주도문화상 수상(상금으로 제주도전에 聽灘賞 제정)
- 1983(79세) 7월 1일 화북동 潮風閣에서 永眠, 幽宅은 화북동 대락동산 선영
- 2009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개관특별전에 서예작품 도연명의 「歸去來辭」
와 사진작품 「나루터」, 회화작품 「風景」 출품

2. 청탄 김광주 印譜

閒思 和清	秋金 印光 灘聽	考槃	長樂	秋金 印光	春在 堂	秋金 印光	老馬 城日
心畫	秋金 印光	灘聽	長春 不老	心畫	灘聽	秋金 印光	月春 恒好 秋
橫行 無進	秋金 印光	灘聽	秋金 印光	大吉 祥	灘聽	至閑 樂中	灘聽
秋金 印光	秋金 印光	一生 稽古	吾志 在西 竈	灘聽	灘聽	靜餘	在月 手

							
秋金印光	秋金印光	延年益壽	壹年無日 不看華日	秋金印光	灘聽		石鼎茶香
							
秋金印光	秋金印光	家在別刀堂墟洞 金鷄抱卵形局地	光藏 書秋	灘聽	灘聽	秋金印光	
							
秋金印光	秋金印光	灘聽	灘聽	灘聽	秋金印光	四圓有山皆入畫 壹年無日不看華	清而美
							
獻壽盃	秋金印光	秋金印光	鐺色鮮	餽為貴	灘聽		

3. 청단 김광추 작품 목록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1	朱子家訓 10곡병	1971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2	8곡병	1977	 <p data-bbox="550 1249 582 1646"> <small>石金書法名畫社 丁巳為秋 石金</small> </p>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3	8곡병	1978	 <p> 一聲鳥啼破春寂 數點落花生舊村 林邊鳥語月微心 升裏花飛春又深 掃地就涼松日少 煮茶沽酒石泉新 清溪遠屋可濯衣 好鳥隔江如喚人 </p>
			 <p> 月過初三半梳玉 菊迎重九滿籬金 天照海外三千界 月得人間華百秋 啼鴉井上聲風散 殘雪畫前明 山近朔風吹積雪 天寒落日淡孤村 </p> <p> <small>石山酒翁并制 大雅詩正 丙午夏 吳昌碩</small> </p>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4	8곡병	1979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5	歸去來辭 8곡병	연대 미상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6	6곡 병	연대 미상	<p> 少無適俗歎 性本愛丘山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 羈鳥戀舊林 池魚思故淵 罕荒南陔際 守拙歸園田 方宅十餘畝 卅屋八九間 榆柳蔭後簷 桃李羅堂前 </p> <p> <small>李完珩書</small> <small>光緒</small> </p>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7	8곡병	연대 미상	 <p> 一榻茶烟為客話 半簾花影枕書眠 萬卷詩書消日月 一灣瓊瑤共澗昏 一草一花閑自放 為泉為石靜中看 山高海深人不測 古往今來轉青碧 細白濕衣香不見 閑花落地祇無聲 老去閑思多舊事 客來清話半新吟 百年障眼書千卷 四海資方筆一枝 青苔翠竹汝心好 白石清泉吾故鄉 </p> <p> <small>白石堂金東景大梅仙鑒 江蘇</small> </p>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8	4곡병	연대 미상				
9	4곡병	연대 미상				
10	4곡병	연대 미상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11	4곡병	연대 미상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12	有生於無	1973	
13	蘭芳桂馥	1975	
14	轉迷開悟	1975	
15	和氣滿堂	1977	
16	雲遊霞宿	1978	
17	雲捲月來	1978	
18	邨情山趣	1979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19	和敬清寂	1979	
20	義在正我	1979	
21	俯仰天地	1979	
22	和風慶雲	1980	
23	水深江靜	1980	
24	先憂後樂	1980	
25	克己復禮	1980	

연 번	작품 제목	제작 년도	작품 사진
31	「千字文 句」 (김광추 刻 현중화 書)	1975	